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1-55
<https://doi.org/10.29212/mh.2024..13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기획 1

1870~1880년대 일본 군함의 조선 정탐 활동과 해도 제작*

박한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목 차
1. 머리말
 2. 1870년대 일본 측의 함선 파견과 지리정보 수집
 3. 1880년대 아자기함의 조선 연안 파견과 정탐 활동
 4. 맺음말

초 록 이 글에서는 187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조선에 파견되어 연안을 측량하여 해도를 제작하고, 정탐을 하면서 지역 정보를 수집한 일본 군함의 활동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주목한 군함은 가스가함, 다카오마루, 아자기함으로, 조선 항해와 관련된 기록이 잘 남아 있는 편이다. 가스가함은 하나부사가 왜관을 접수하러 조선에 파견될 때 이용한 군함이었다. 가스가함의 조선 파견 당시 하나부사와 승조원들은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24-기획연구-03).

미국 함선이 제작한 해도, 조선의 제도와 역사, 지리 관련 서적을 휴대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1875년 운요함 사건 이후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될 무렵에는 조선의 연안을 측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서가 일본 내에서 나왔다. 연안 측량 건은 「조일수호조규」 제7관에 반영되었다. 조선의 개항 이후 개항장을 탐색하기 위해서 외교 사절과 함께 조선에 파견된 일본 군함으로는 다카오마루, 아마기함이 있었다. 일본 군함은 조선 연안을 측량하고 정탐 활동을 전개하면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측량 기록은 해도로 작성되었고, 해마다 측량 작업을 거듭하면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증보하였다. 또한 항해일지 가운데 일부 내용을 편집, 가공하고 수로 잡지에 게재함으로써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여 나갔다. 1880년대 아마기함의 조선 개항장 파견 사례는 일본 거류민 보호 뿐만 아니라 조선 내부의 정치 변동이나 지역 사회의 분위기까지 파악하여 본국에 보고하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조선에서 정탐 활동과 측량을 통해 수집한 결과물은 청일전쟁에서 활용되는 기본 자료가 되었다.

주제어 : 개항, 정탐, 조일수호조규, 해도, 연해 측량, 아마기함, 운요함, 개항장, 하나부사 요시모토, 청일전쟁

(원고투고일 : 2024. 10. 9.,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7.)

1. 머리말

정탐(偵探)이란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것”을 가리킨다. 상대국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황,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탐 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일은 오랜 연혁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의 여러 정보를 활발하게 수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주재국 외교 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한일 관계 속에서라면 동래부(東萊府)에 설치되어 있던 초량왜관(草梁倭館)이 대표적으로 양국인들이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서로의 내밀한 정보까지 입수할 수 있는 통로였다고 할 수 있다.

조일 양국 관리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던 왜관이 철폐된 것은 1872년이였다. 외무대승(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외무성(外務省)의 지령을 받고 도한하여 쓰시마 상인들을 퇴거시키고, 왜관을 일방적으로 일본 공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 한일 관계는 잘 알려져 있듯이 서계 접수 문제로 인하여 경색 국면이 이어졌다. 그 외중에 조선 정부 내에서는 ‘대원위분부(大院位分付)’의 형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단행하면서 대일 관계에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 핵심 세력의 절반은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으로 구미 여러 국가를 시찰하고 있었는데, 국내에 남아 있던 정치 세력을 중심

으로 정한론(征韓論) 정변이 발생하였다. 조선과의 외교적 경색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지를 두고 노선이 나뉘었다. 결과적으로 ‘내치우선론(內治優先論)’의 입장에 서있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정한론을 주장하던 사이고 다카모리(西鄉隆盛)에게 승리를 거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일본 국내의 식산흥업 문제에만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 조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완급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1874년 타이완 침공 후 청국과의 류큐(琉球) 귀속 문제 협상, 1875년 러시아와의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체결 등의 현안을 처리하고 난 뒤 일본 정부는 조선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해금(海禁)’과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의 원칙을 명분으로 문호개방을 거부하고 있던 조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새로 제조한 함선을 파견하여 정탐과 측량 활동을 전개하면서 새롭게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일본은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이 조선 연안에서 측량한 결과물인 해도(海圖)를 입수하여 여기에 자신들의 정탐과 측량 활동 결과를 반영, 수정하면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나갔다.

개항 이후 일본의 조선 연안 측량과 해도·외방도(外邦圖) 제작, 정탐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888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參謀本部)에서 조선 내 정탐 활동 결과를 집대성한 『조선지지략(朝鮮地誌略)』을 간행한 과정에 대해서는 무라카미 가쓰히코(村上勝彦)가 상세하게 정리하였다.¹⁾ 이후 지리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제국 일본이 제작한 ‘외방도’에 주목하여 일본 국립공문서관과 국립국회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1) 村上勝彦, 「解説 隣邦軍事密偵と兵要地誌, 『朝鮮地誌略』 1, 東京: 龍溪書舎, 1981.

작업이 한국과 일본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²⁾ 또한 ‘외방도’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개 작업을 통해 2010년대 이후 측량도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

개항 초기 조선에 들어와 정탐 활동을 벌이고 측량도를 제작한 인물로 가이즈 미쓰오(海津三雄)에 주목하여 시기별로 그가 수행한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³⁾ 가이즈를 비롯하여 조선에 활동하던 하나부사 요시모토 등이 관여한 도쿄지학협회(東京地學協會)의 활동에 주목해 회원들의 명단과 인물들의 면면을 소개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른 기관 등에 대한 논문까지 포함하여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⁴⁾

한편으로 조선 연안 측량 결과물 속에 울릉도·독도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는지를 일본 해군 수로국에서 간행한 『수로잡지(水路雜誌)』와 해도 등을 활용한 연구가 있었다.⁵⁾ 한철호는 1876년 호쇼함(鳳翔艦), 1878년 아마기함(天城艦)의 활동에 주목하여 시기별로 조선 연안에 대한 측량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살펴보았다.⁶⁾ 최근에는 1875년 9월 20일 강화

2) 양윤정,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 小林茂·岡田郷子渡辺理絵, 「東アジア地域に關する初期外邦圖の編集と刊行」, 『待兼山論叢 : 日本學編』 44, 大阪: 大阪大學 文學研究科, 2010 ; 小林茂, 『外邦圖 : 帝國日本のアジア地圖』(東京: 中公新書, 2011) ;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 조선말~일제강점기』, 法文社, 2011 ; 小林茂 編, 『近代日本の海外地理情報収集と初期外邦圖』, 大阪: 大阪大學出版會, 2017.

3) 安岡昭男, 「初期の東京地學協會と軍人」, 『政治經濟史學』 400, 東京: 日本政治經濟史學研究所, 1999 ; 小林茂·岡田郷子, 「19世紀後半における朝鮮半島の地理情報と海津三雄」, 『待兼山論叢 : 日本學編』 42, 大阪: 大阪大學 文學研究科, 2008 ; 박한민, 「조일수호조규 관철을 위한 일본의 정찰활동과 조선의 대응」, 『歷史學報』 217집, 2013.

4) 최혜주, 『정탐 : 제국일본, 조선을 엿보다』, 한양대학교출판부, 2019.

5) 정영미,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2015, 187~195쪽.

6) 한철호,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東北亞歷史論叢』 50호, 2015 ; _____, 「조일수호조규 체결 후 일본 군함 호쇼(鳳翔)의 조선 해안 최초 측량과 그 의의」, 『韓國史學報』 83호, 2021.

도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켰던 운요함(雲揚艦)의 두 차례에 걸친 조선 도항과 원산 개항 과정을 추적하면서 관련 기록을 새로 발굴하여 조선 측의 대응과 일본 내 언론 보도까지 폭넓게 다루는 연구로까지 연안 측량과 정탐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⁷⁾

이 글에서는 일본의 조선 연안 측량과 정탐 활동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료를 발굴, 활용하여 1870~80년대의 정보 수집과 유통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활용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하성문고(霞城文庫),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과 방위성 방위연구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검토의 출발점은 1872년 하나부사가 왜관 철폐를 목적으로 도항할 당시 승선한 군함 가스가함(春日艦)으로 삼는다. 가스가함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에서 처음으로 조선에 파견한 함선이었기 때문이다.⁸⁾ 1875년 운요함 사건 발발 전후로는 일본 정부 내에서 연안 측량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의견서가 나오고 있었다. 이것이 「조일수호조규」의 제7관 조항으로 반영되고 있었던 만큼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와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의 의견서 내용을 새로 소개해 보려 한다. 구로다는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전권대신이었고, 모리는 청국에서 이홍장(李鴻章)과 조선 문제를 두고 교섭을 진행한 자였다. 둘 다 조약 체결이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

7) 박한민, 「1875년 운요함(雲揚艦)의 조선 연안 정탐 활동과 신문보도」, 『韓國史研究』 202호, 2023a ; _____, 「일본의 동해안 정탐 활동과 원산 개항」, 『한국근현대사 연구』 107호, 2023b.

8) 가스가함은 1871년 홋카이도(北海道) 연해를 측량하였다. 이때 함장은 야나기 나라요시(柳樽悦)였다. 이해 10월 가스가함장에서 면직된 야나기는 이후 수로국을 창설하고 초대 수로국장으로서 활동하였다. 야나기는 1878년 각국의 수로부와 관상대 시찰을 하기 위해 구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海上保安廳水路部 編, 『日本水路史 1871~1971』, 東京: 日本水路協會, 1971, 15~25쪽.

문에 이들이 연안 측량 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항 전후로 활발하게 동해와 남해, 황해 연안을 왕래 하면서 지역 정보를 활발하게 수집, 해도(海圖)를 제작한 다카오마루(高雄丸)와 아마기함(天城艦)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이들 함선에서 남긴 항해일지와 측량도가 편집과 가공 과정을 거쳐 어떠한 매체에 수록되었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비교적 잘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정탐과 측량 정보가 일본 내에서 어떻게 축적, 가공, 확산되어 갔는지를 추적하고 정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187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수집된 조선 관련 정탐 정보와 해도는 1894년 청일전쟁 발발 당시 육해군에서 작전 수립과 운용에서 활용되는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의 구성과 지면 관계상 1894년 청일전쟁 개전 이후의 상황은 소략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1880년대 후반 반조함(磐城艦)의 대동강 연안 해도 작성과 아마기함이 대동강 연안에 정박하던 당시의 상황 보고를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2. 1870년대 일본 측의 함선 파견과 지리정보 수집

가. 1872년 하나부사 외무대승의 조선 파견과 가스가함

1) 하나부사의 파견과 조선 관련 지리 서적의 참고, 수집

1872년 8월 일본 외무성(外務省)은 하나부사 외무대승을 왜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공관을 접수할 목적으로 조선에 파견

하였다. 파견 명령은 8월 18일에 있었다. 하나부사가 조선으로 파견될 때 이용한 선박은 가스가함과 유코마루(有功丸)였다. 출발에 앞서 하나부사는 조선국 지도 7매를 해군성(海軍省) 관리 엔부 히데유키(遠武秀行)에게 회람하였고, 해군성에서는 이 지도를 필사한 다음 외무성에 돌려주었다.⁹⁾ 이 문서에 첨부된 도서 목록을 보면, 조선 도한과 관련하여 외무성에서 기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참고자료가 여러 종이였다. 목록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조선관원고(朝鮮官員考)』 같은 자료를 비롯하여 조선과의 교섭 기사가 수록된 『조선통교시지서(朝鮮通交始之書)』와 『통교대기(通交大紀)』, 울릉도쟁계(鬱陵島爭係)에 대한 조일 간 교섭 전말을 기록한 『죽도기사(竹島紀事)』, 『해동기(海東記)』 등의 자료가 등장한다. 지리와 풍속 관련 서적으로는 『조선속고(朝鮮俗考)』와 『조선각도도리(朝鮮各道[各邑各山]道里)』가 있었다. 공무로 조선에 도향할 때 제도와 역사, 지리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서적을 구비하고 수시로 참고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스가함에서도 미국 군함이 제작한 강화도 해도와 측량도를 외무성에 요청하여 대여하였다.¹⁰⁾

하나부사 일행은 8월 28일 시나가와(品川)에서 가스가함을 타고 출항하였고, 9월 15일 부산포 초량항에 도착하였다. 함선의 입항 당시 부산에서 별다른 동요는 보이지 않았지만, 상인들의 철시(撤市)로 인하여 왜관에는 통역들만 드나들고 있었다.¹¹⁾ 일행에는 육군성(陸軍省) 관원 4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기타무라 시게요리(北村重頼) 육군 소좌, 벳부 신스케(別府晋介)

9) 丙第1385號 壬申 9月 15日 海軍省→外務省, 「明治五年ノ七ノ卷之十七 係于花房大丞渡韓」/2 壬申八月二十七日至」(Ref. B03030170600).

10) 金義煥, 『朝鮮對日交涉史研究』, 通文館, 1966, 244쪽; 김홍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308~309쪽.

11) 壬申 9月 17日 花房 外務大丞→大少丞, 위의 자료(Ref. B03030170600).

육군 대위가 있었다. 이들 육군 장교는 사이고 다카모리와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에게 조선 정탐을 수행하고 오라고 지시를 받은 자들로, 삼남 지방의 물정을 정탐하였다.¹²⁾ 부산에 체류하는 동안 9월 23일 새벽 하나부사는 일본으로 건너가기를 청원하는 조선인 한 명과 접촉하였다. 이때 그 조선인은 「팔도경성노정기(八道京城路程記)」와 지도를 휴대하였다.¹³⁾ 10월 3일에는 전 교린괘(交隣掛)가 가지고 나온 『동국여지지략(東國輿地誌略)』 같은 자료를 열람하면서 조선 측 지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⁴⁾ 하나부사는 초량왜관에서 공무를 마친 후, 가스가함을 타고 귀국하였다. 11월 6일에는 외무경(外務卿)에게 복명하였다. 같은 달 10일에는 정원(正院)에 출석하여 참의(參議) 이타가키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서류 제출을 마쳤다.¹⁵⁾

하나부사 일행이 왜관을 일방적으로 일본 공관으로 접수하는 작업을 마친 후에도 조선과의 교섭은 서계 접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었다. 여기에 일본 국내의 정한론 정변 발발, 조선 정계에서 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 단행 등 정치적 격변이 계속되고 있었다. 1874년 5월 15일 태정대신(太政大臣)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는 조선으로 파견하는 외무성 6등 출사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 지시를 내렸다. 조선으로 건너가 지역 내 정세를 상세히 탐색하고, 교섭을 위한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¹⁶⁾

12) 金義煥, 앞의 책, 244쪽; 村上勝彦, 앞의 글, 5쪽.

13) 1872년 9월 22일, 위의 자료(Ref. B03030170600).

14) 1872년 10월 3일, 위의 자료(Ref. B03030170600).

15) 1872년 11월 10일, 위의 자료(Ref. B03030170600).

16) 金義煥, 앞의 책, 301~302쪽; 김홍수, 앞의 책, 350쪽.

우선 나가사키(長崎)에 가서 증기선을 고용하여 쓰시마(對馬)로 향해함에 따라 소형 일본선 세 척으로, 하나는 초량관으로 파견하여 자세하게 동정을 살핀다. 두 번째는 탐색(探索)으로 거제, 울산 근처의 해안에 표착하도록 하여 저들의 접대가 어떠한지를 시험하도록 한다. 이 증기선이 쓰시마에 계박하는 것은 대략 20일 동안으로 할 예정이며, 미리 약속을 정해 두고 임기(臨機)로 진퇴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탐색선(探索船) 각자가 귀향하여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다면 신속하게 증기선 고용을 해제할 것.¹⁷⁾

이것은 탐색선 세 척을 동래와 거제, 울산으로 각각 보내어 현지에서 조선 지방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탐색해 보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발포 같은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선박이 부산포 항구에 가서 만약 저들로부터 갑자기 발포 등을 하는 일이 있다면 신속하게 쓰시마로 퇴각하고, 오히려 임기(臨機)로 관내의 동정을 탐지할 수단을 다해야 한다. 만약 그 시찰할 방도가 끊어질 때는 속히 상경하여 그 취지를 보고할 것.¹⁸⁾ (밑줄은 인용자)

일본 선박의 부산 입항 후 조선 측의 발포라는 유사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왜관 내 상황의 ‘탐지’에 주력하되, 더 이상 확인할 방도마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도쿄로 상경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한론 정변이 발생한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발포’ 같은 무력 충돌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일방

17) 1874년 5월 15일 太政大臣 三條實美→外務省 6等出仕 森山茂(Ref. B03030131600).

18) 1874년 5월 15일 太政大臣 三條實美→外務省 6等出仕 森山茂(Ref. B03030131600).

적인 생각에 불과하였다. 조선 측으로서는 ‘유원지의(柔遠之義)’에 따라 통사를 파견해 문정을 하면서 일본 선박의 도항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 발포부터 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운요함(雲揚艦)의 1차 도항 당시 함경도 덕원부(德源府), 경상도 영일현(迎日縣)의 지방관이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 함장 일행에 대하여 문정을 실시하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¹⁹⁾

2) 운요함 사건 전후 연안 측량에 대한 의견서와 「조일수호조규」 제7관

1875년 5월 25일 운요함이 부산에 입항하였다. 다음날 훈도 현석운(玄昔運)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와 만나 운요함에 대한 기본 정보를 들으면서 문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하였다. 모리야마는 운요함의 “함장은 해군 소좌 이노우에 요시카로 승조 인원은 대략 100명 정도”며, 일본 측 사절을 파견할 때는 “반드시 보호를 위해서 군함을 붙이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²⁰⁾ 이때 운요함의 전체 승선 인원은 76명이었으므로, 이때 언급된 인원수에는 과장이 있었다.²¹⁾ 이보다 3년 전인 1872년 하나부사 외무대승을 왜관으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군함을 파견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파견된 군함은 앞서 나온 다카오마루였다.

정사 : 군함 파견은 조정의 특명이 있었고, 우리들이 이것을 가타부타 말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군함이 내박하도록 한 앞바다

19) 박한민, 앞의 논문(2023a), 285~292쪽.

20) 五月二十六日午前十二時訓導玄昔運就館二付正副理事官應接, 「從明治八年二月至同年六月 朝鮮應接書」, 『樺山資紀文書』(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21) 『日本外交文書』卷8, #36 軍艦雲揚渡鮮後朝鮮國側ヨリ決答ノ期日ヲ約束スルニ至リタル旨報告ノ件 附記, 92~93쪽.

는 무엇도 걱정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이후 조금이라도 이 해변을 통항하는 선함이 많으므로, 만약 귀국 좌우의 주변 해안(邊岸)에 표착하여 도달할 때는 선례에 따라 잘 대우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도 : 제반 선박이 와서 정박할 때는 반드시 문정을 위해서 그 선박에 승선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규칙입니다. 문정을 하기 위해 그 함선에 가고 싶습니다.

정사 : 다른 포구나 나루(浦津)에 계박할 때는 문정을 함은 물론입니다. 지금 이 공관에 공무가 있어서 온 선박이므로, 이 공관에서 문정해야 옳습니다. 또한 군함은 하나의 해성(海城)과 같아서 규칙이 엄중하여 우리들이 마음대로 승선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견(拜見)하고 싶다고 간청한다면 그 취지를 함장에게 의뢰하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²²⁾ (밑줄은 인용자)

훈도는 “선박이 와서 정박할 때는 반드시 문정을 위해서 그 선박에 승선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규칙”이라며 조선 측의 문정 원칙을 일본 측에 전하였다. 하지만 모리야마는 함선이 ‘하나의 해성(海城)’과 같아서 마음대로 승선시키기 어려우며, 함내 ‘배견’은 함장에게 의뢰해 볼 수 있는 정도라면서 문정을 위한 조선 관리의 승선 요구를 거절했다. 5월 30일에도 훈도는 “군함의 도착 건은 내심 몹시 걱정”이고 조선인들에게도 “의구심도 적지 않다”면서, 군함의 도착은 조일 양국이 우호 관계를 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하는 자도 있어 자신이 “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였다. 모리야마는 운요함이 “이사관 보호를 위해 도

22) 五月二十六日午前十二時訓導玄昔運就館二付正副理事官應接, 『從明治八年二月至同年六月 朝鮮應接書』, 『樺山資紀文書』.

항시킨 군함”이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발언에 혼도는 군함 한 두 척의 입항이 두렵지는 않으나, 조선 정부 내에서 일본이 ‘화호(和好)’를 추진하려는 뜻이 아니라고 보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질 것을 염려하였다.²³⁾ 혼도가 운요함의 부산 입항에 대한 조선 내부의 우려 분위기를 전달한 가운데, 운요함은 동해안을 따라 함경도 영흥만 일대까지 왕래하며 정탐을 한 후 귀항하였다.

1875년 9월 20일 이노우에 함장과 승조원들이 보트를 타고 염하(鹽河)를 무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조선 측에서 발포하자, 포격을 구실로 삼아 운요함은 22일까지 강화도와 영종도 일대를 공격하고 노획물을 챙겼다. 나가사키로 귀항한 운요함장은 상황을 일본 정부에 즉시 보고하였다. 국제법 위반 문제를 의식한 일본 정부는 3일간의 전투를 하루에 발생한 일로 함장 보고서를 조작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게다가 급수하려다가 일본 군함이 조선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응전에 나섰다는 식으로 대외 여론전을 펼쳤다. 일본 국내에서는 조선을 응징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정한 여론이 들끓었다.

10월 5일 외무성에서는 1866년 병인양요 발발 전 강화도 인근 지역까지 다녀온 영국인 제임스(James)를 불러 운요함 사건 발생 이전에 조선 측의 대응이 어떠하였는지를 파악하려 하였다. 제임스는 강화 일대를 그린 개략도를 통해 프랑스와 미국 군함이 마찬가지로 최근에 돌아온 운요함도 압초가 적지만 강화도와 마주한 대안(對岸)에 포대가 설치되어 있는 남로(南路)로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남로는 염하 쪽을 가리킨다. 현

23) 五月卅日訓導別差就館正副官應接, 「從明治八年二月至同年六月 朝鮮應接書」, 『樺山資紀文書』.

재 일본 해군성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도 선본(善圖)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보여준다면 좀 더 이야기해 줄 내용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가 강화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조선 관리가 와서 속히 퇴거하라고 독촉하였다. 또한 강화부사가 병력을 대동하고 오기도 했으며, 청국에 연행사로 다녀오고 중국어에도 능통한 70살 정도의 고관도 와서 만났다고 한다. 제임스는 이들에게 물품 교역을 희망해서 도항하였다고 하였다. 그 고관은 조선이 “오직 청국과 다소 무역하고 있을 뿐”으로 “결코 타국과 통교, 무역 등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제임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 15일간 정박하면서 제임스는 내하(內河)를 거슬러 올라가며 수심을 측량하고, 강화부 시가까지 둘러보면서 이때 목격한 조선인에 대한 인상, 나가사키 시가보다 광활하였던 강화부에 대해 말하였다. 그를 만나러 온 조선 관리들은 접대를 돈독히 하면서 닭과 돼지, 채소 등의 식료를 제공해 주었다.²⁴⁾ 제임스의 과거 경험담을 통해서도 조선 측이 출몰한 이양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정을 나와 필담을 나누고, 필요한 식료를 제공하는 노선을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리 아리노리는 운요함 사건 발생 후 조선 연안을 측량할 권리를 취득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서를 기초, 번역하여 외무성의 국제법 고문 에라스무스 펠샤인 스미스(Erasmus Peshine Smith, 1814~1882)에게 자문을 구하였다.²⁵⁾ 이것이 「조선국

24) 「明治八年十月五日午後二時外務省ニ於テ海軍省雇ヒ英人ゼームス氏ヲ招キ同氏カ會テ朝鮮國江華島ニ航シ至リシトキノ景況ヲ問フゼームス答話聞書」(Ref. B03030131600).

25) 스미스는 미국 국무성에서 근무하던 법률가로, 1871년 당시 미국에 파견되었던 모리 아리노리 소변무사(少辨務使)와 고빙 계약을 체결하여 이해 10월 중순 도일하였다. 1871년 11월 1일부터 외무성 고문으로 있으면서 마리아 루즈호 사건, 운요함 사건 등의 처리에 자문으로 관여한 후 1876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사이에 귀

연해 측량 권리의 건(朝鮮國沿海測量權利之儀)」이다. 조선국이 “발포하여 흉포한 해를 가한” 운요함 사건 발발 이후 조선 연해를 측량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내용을 담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여 선박의 편리가 필요한 우리 섬나라 같은 곳은 그 연해를 말할 필요가 없다. 이웃 나라의 해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선박이 이르는 곳은 모두 그 얕고 깊음, 위험한 암초의 유무를 상세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선박의 보안을 예방한다. 또한 이로써 운수 방법을 용이하게 하여 상업의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지금은 지구상 만국이 각기 해안을 상세히 파악하는 일을 힘써서 설정하고, 스스로 착수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것을 허락하여 항해 선박이 편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조선국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 연해를 방치하여 불행한 운수의 난처함을 무수한 항해객이 당하도록 만들었다. 때로는 외국인이 저 나라에 가서 측량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망령되게 이것을 거절하거나 혹은 포를 발사하면서 흉포한 해를 가하였다. 그렇지만 외국은 아직 깊이 여기에 화내지 않고, 일이 많아서 주로 관대하게 한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정략과 술법 역시 이것을 잘 모방할 수 있다. 이것은 필경 저들을 다른 나라의 공법을 인정하고 준수하는 여러 나라와 같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그 나라는 우리와 이웃하며, 그 연해는 우리 선박과 사람의 운명을 맡기는 곳이었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가령 그 죄는 잠시 체쳐두고 따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그 해안을 상세하게 함으로써 선박과 사람의 보안을 예방해야 한다. 이것을 하는데 이르러 만약 저들이 포악하게 우리를 대한다면 여기에 응할 다른 방도는 없으며, 상당한 징

국하였다. 今井庄次, 『お雇い外国人：外交』, 東京: 鹿島出版會, 1975, 47~60쪽 ; 왕위안충 지음, 손성욱 옮김, 『조선은 청제국에 무엇이었나』, 너머북스, 2024, 199~200쪽.

계를 가하여 그 포악함을 제어해야 한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가 목적하는 측량을 수행하고 중지할 뿐. 그렇더라도 그 업무를 시작하는 쪽에서는 우선 일단 저들 정부에게 그 일을 예고함이 옳다. 여기에 문맥의 대략을 아래에 기록한다.

첫째, 우리 선함(船艦)을 통해 조선의 연해를 측량하는 목적은 전적으로 조난선(難船) 예방을 위한 데서 나오며, 또 다른 의도는 없음.

둘째, 조선 정부에서 상세하게 조사한 측량도(測量圖)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우리나라는 부득이하나 거액의 자금을 들여 조선 연해에서 아직 측량하지 않은 부분을 자세하게 측량함으로써 우리 조난선의 예방을 하는 일은 확실(的然)하게 우리 권리일 수 있음.

셋째, 조난선 예방은 정부가 인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무로, 그 주의는 애초부터 인도(人道)의 대의에 의거하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이것을 도와서 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 행위는 여기서 나오므로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망명되게 우리 측량선을 향하여 발포 등의 폭거가 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애초에 역시 우리 권리일 수 있음.

앞서 논한 내용은 전적으로 연해 측량의 권리 한 가지 건에 관련된다. 이것을 실지에서 시행하더라도 조선국에 대하여 조금도 예의를 잃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만국의 판단과 관련하여 오히려 그 명예를 칭함을 얻더라도 결코 그 모함을 초래하지 않는 일이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밑줄은 인용자)²⁶⁾

26) 「朝鮮國沿海測量權利之儀」(1875년 11월 7일), 『自明治八年至同九年 朝鮮關係 考證彙輯』(한국학중앙연구원 하성문고 및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이 의견서를 보고 모리와 대화를 나누는 스미스는 “포탄이 도달하는 곳의 연해는 여기를 소유한 국가의 권리 안이기 때문에 윤택을 받지 않고서 마음대로 침입하여 측량하는 일은 공법의 조리에 따르자면 심히 불가”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선국은 “아직 공법의 지배를 받는 곳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독립(獨立)한 일국으로 스스로 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해 측량의 거부도 “그 권리 내의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조선이 독립국인 이상 당연히 타국의 ‘연해 측량’을 허가할지 말지의 여부는 주권국이 가진 권리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리가 주안점을 두었던 연해 측량과 관련된 내용은 「조일수호조규」 제7관에 반영되었다. 제7관의 연해 측량은 일본이나 중국이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조일 간에 체결한 조약에 새로 등장한 조항이다.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적이 없어서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수시로 연해를 측량해 그 위치와 깊이를 재고 지도를 만들어 양국 항해자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한다.²⁷⁾

이 규정은 1874년 10월 1일 모리야마가 훈도 현석운을 통해 동래부사에게 전달하였던 11개 조항에 없던 내용이기도 하다.²⁸⁾ 요컨대 「조일수호조규」 제7관의 연해 측량은 일본 측이 조선 진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신설해 넣은 조항이었다.

27) 최덕수 외 지음,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36쪽.

28) 金義煥, 앞의 책, 337~338쪽. 이 문서(「口演」)에는 양국민을 관리할 관리의 명칭, 도고(都賈) 폐지, 관리의 자체적인 무역 금지, 표류민과 표류 선박의 대우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나.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후 함선 파견과 개항장 물색

1876년 2월 27일 조일 양국은 12개 조관으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부산 이외에 추가로 두 곳을 조사하여 20개월 이내에 개항장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통상과 관련된 세부 항목은 별도로 사절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규칙」을 협의할 목적으로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 이사관(理事官)이 파견되기에 앞서 조선에 “사신으로 가서 관계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 구로다 기요타카는 군함을 파견하여 조선 연해를 측량하는 일이 ‘금일의 중요한 업무’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통상장정은 그 조목이 자못 번잡하고 자잘하므로 상세하게 고찰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순일(旬日)의 공을 허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해로(海路)가 요원(遼遠)하고 항정(航程)을 저애하고 지체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시기를 지체함이 있다면 신의를 외국에게 상실하고, 그 모욕하고 업신여김(輕侮)에 편승하니 그 해(害)가 어찌 깊이가 얕고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위원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저 나라의 연해(沿海)를 측량하여 그 험난함과 용이함(嶮易)을 고찰, 강구하고, 통상에 편리함이 있는 지역을 택하여 조약 가운데 20개월을 기약하여 개항할 곳의 항구를 예정하는 일은 금일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선은 연해가 위험(危險)한 지역이 많고, 겨울에는 기후가 격량인 시기를 맞아서서 항행이 불편하므로, 모쪼록 지금에 이르러 군함을 파견하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²⁹⁾ (밑줄은 인용자)

구로다로서도 조선의 연해 측량을 통해 통상에 편리한 개항장을 설정하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태정대신

29) 1876년 5월 25일 參議 黒田清隆→太政大臣 三條實美, 『三條家關係文書』 書類の部-明治期書類の部-諸氏意見書類-51.朝鮮-黒田清隆意見書 51-10(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에게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두 곳의 추가 개항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선에 사절을 파견할 때 군함이 수행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1877년부터 1879년 사이 조선에 파견된 다카오마루와 아마기함이 대표적인 함선으로, 연해 측량 및 정탐 자료가 잘 남아 있어 주목된다.

1) 다카오마루와 아마기함의 연안 측량과 정탐 활동

1877년 10월 4일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부산에 도착하였다. 하나부사 일행이 타고 온 다카오마루 안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다. 선내를 소독하고 병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10월 7일 부산포에서 출항, 나가사키(長崎)로 일시 귀항하였다.³⁰⁾ 하나부사는 동래부사와 면담 등을 한 후, 다카오마루가 돌아오자 11월 3일 부산포를 출발, 전라도의 남해안 일대를 거쳐 한성으로 향하였다. 대리공사 일행이 청수관(淸水館)에 도착한 후 조선 정부에서는 예조판서 조영하(趙寧夏)와 예조참판 홍우창(洪祐昌)이 이들을 맞아 담판에 임하였다.³¹⁾ 개항장 설정 건의 경우 “다시 탐색을 실시하여 나중에 지명을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탐색의 편의를 위해서 함선에 석탄을 적재하고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함경도 문천군 송전(松田), 전라도 거문도와 진도 세 곳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12월 20일 홍우창은 하나부사와 7개 조관으로 된 「석탄위장약조(石炭圍場約條)」를 조인하였다. 함선의 측량에 필요한 석탄 등의 물품을 전라도 진도 벽파정과 거문도, 함경도 문천의 송전촌에 적치해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민을

30) 「復命概略」,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1) 『花房義實關係文書』 406-3에는 1877년 대리공사 일행의 입경 당시 통진 공해문(控海門)에서 한성 청수관(淸水館)에 이르는 경로를 그린 약도가 남아 있다. 여기에는 아마노조 스케나가(山之城祐長)가 소지한 회중시계와 자석 등으로 시간과 방향을 표시한 기록이 들른 장소별로 기재되어 있다.

고용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 둔다는 내용이었다.³²⁾

하나부사 일행은 12월 21일 서울을 출발, 30일 부산에 도착하여 1주일 체류한 다음 출항하여 1878년 1월 20일 요코하마(橫濱)로 돌아갔다.³³⁾ 조선을 왕래하면서 하나부사가 이용하였던 다카오마루가 부산에서 전라도 서남 지역과 충청도 연안을 거쳐 경기도까지 항해하면서 수집한 지역 정보와 측량 내역은 「메이지 10년 조선기사」에 일자별로 상세히 나온다. 작성자는 측량 업무에 종사한 장교 가이즈 미쓰오와 시모무라 슈스케(下村修介)였다. 이들은 조선이 “쇄국(鎖國)을 원대한 방책으로 삼은” 나라이지만, 국제정세상 동북 국경을 청과 러시아에 접하고, 서남쪽은 일본과 이웃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쇄국으로 외교(外交)를 막으려는 일은 역시 어렵다”고 판단하였다.³⁴⁾ 본인들이 이번 도한에서 맡은 소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현재 하나부사 대리공사가 다카오함으로 하여금 항행하도록 하는 길에 진도, 목포, 아산의 여러 지역을 우회하여 항만이 좋은지 여부를 조사, 측량하도록 하였다. 그 사이에 무릇 1개월 정도 저들 나라 서남 해안의 지세, 풍토, 그 건문한 바에 기초하여 이것을 기술한다. 또한 영국 해도(海圖)와 우리 해군 사관의 실측도(實測圖)에 기초하여 이것을 보완하여 기술을 부수함으로써 참고에 제 공한다.³⁵⁾ (밑줄은 인용자)

이 내용은 「조선기사」를 작성하게 된 연유와 목적을 도입부에서 소개한 것이다. 경기도 인천까지 항해하는 도중에 전라도 서남 지역에 위치한 진도, 목포를 거치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정

32) 1877년 12월 20일 乙號 「石炭圍場約條」,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33) 「復命概略」,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34) 辯言,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35) 辯言,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보를 조사하여 수집하고, 기존에 있던 영국 해도를 참고하여 실측도를 새로 제작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작성한 기사는 부산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라도 강진현 소안도(所安島), 해남현의 오마로도(五馬路島), 진도 내 벽파정(碧波亭), 사도(沙島) 등산진(登山津), 목포(木浦), 경기도 남양만(南陽灣)의 풍도(豊島)와 고온포(古溫浦), 인천만(仁川灣) 제물포(濟物浦), 영종도와 월미도, 통진부에서 한강을 거슬러 한성에 들어가는 길 등을 지역별로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들은 들른 지역마다 경위도, 호구수, 주요 생산물과 생업, 방어시설과 선박계류 상황, 주둔 병력수, 주변의 풍경과 조류, 수심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이들이 상륙할 때마다 각 지방관은 문정을 하기 위해서 속관(屬官)이 일본인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진도 벽파정에서는 진도군수 속관 김갑진(金甲鎭), 목포에서는 상존위 문진규(文珍奎)와 만호 김진우(金振祐), 청산첨사 정용묵(鄭容默)의 속관 박홍성(朴弘性), 인천에서는 인천부사 이남집(李南輯)과 영종첨사 양주성(梁柱星)이 나와서 함선 승조원을 맞이하였다.

목포 지역을 둘러본 측량 장교들은 “항구 안의 위험과 평온함을 추측하고 포구가 개항장에 적당한지 여부를 시찰하기 위해” 입항하였으나 이곳은 “개시장(開市場)으로 삼을 만한 지역이 아니다”고 판단하였다.³⁶⁾ 오마로도(五馬路島)와 목포 지역에 대해서는 측량 담당 장교들이 기록한 「조선국 남해안 화성돈 해만 기사(朝鮮國南海岸華盛頓海灣記事)」와 「11월 10일 토요일 오마로도에서 목포에 이르는 기사」, 그리고 목포 측량도가 한 장 남아 있다.³⁷⁾ 오마로도에서 목포로 갈 때는 다지리(田尻) 중위, 고다마 가네타카

36) 木浦,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37) 「朝鮮國南海岸華盛頓海灣記事」,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十一月十日土曜日五馬路島ヨリ木浦ニ至ルノ記事」,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甲圖 木浦」,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兒玉包孝)와 다카스기 하루키(高杉春祺) 해군 소위, 가이즈 육군 소위, 아마노조 스케나가 외무 5등속이 하선하여 소증기선으로 이동하였다. 다만 목포 지역을 둘러볼 때는 석탄과 식량이 부족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 「견취도(見取圖)」만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정밀한 측량은 나중에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기록해 두었다.³⁸⁾ 이 기사는 원래 「다카오마루 항해일지」에서 발췌한 문건인데, 『하나부사 요시모토 관계문서(花房義質關係文書)』에도 필사본이 남아 있다.³⁹⁾ 활자본은 일본 해군 수로국(水路局)에서 1879년 6월에 간행한 『수로잡지(水路雜誌)』 제18호에 「조선국 남안과 서안 약기(朝鮮國南岸及西岸畧記)」란 제목으로 편집 작업과 내용 보완을 거쳐 수록되었다.⁴⁰⁾ 잡지 수록 기사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자료의 출전과 더불어 향후 정교하게 대조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하였다.

이 기사는 메이지 10년(1877) 중 해군 소좌 스기 모리미치(杉盛道)가 다카오마루를 타고 조선해(朝鮮海)에 도항할 때 그 승조원 해군 소위 고다마와 동 다카스기가 실제 경험하고 필기한 내용이다. 이후 이 지역에 항해하는 자는 모쪼록 여기에 일치하는 해도(海圖)와 수로지(水路誌)를 비교 대조하고, 면밀히 그 상황을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⁴¹⁾

38) 「十一月十日土曜日五馬路島ヨリ木浦ニ至ルノ記事」,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39) 『花房義質關係文書』 M/F 404-1(北泉社 제작,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40) 海軍少尉 兒玉包孝·高杉春祺 述, 「朝鮮國南岸及西岸畧記」, 『水路雜誌』 第18號, 1~12쪽. 「朝鮮國南海岸華盛頓海灣記事」는 「華盛頓海灣」, 「十一月十日土曜日五馬路島ヨリ木浦ニ至ルノ記事」는 「五馬路島ヨリ木浦ニ至ルノ海路 附雜記」로 수록하였다. 수로국은 항적(航跡)을 표시한 지도로 「從五馬路島至木浦略圖」를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41) 海軍少尉 兒玉包孝·高杉春祺 述, 「朝鮮國南岸及西岸畧記」, 『水路雜誌』 第18號, 15쪽.

다카오마루 승선 장교가 남양부에 상륙하였을 때는 이 근처에 “현재 역려(疫癘)가 유행”하여 “사망한 자가 수천 명 정도”라는 상황을 전해 들었다.⁴²⁾ 여기서 언급된 ‘역려’는 조선의 개항 직후 유행하고 있던 콜레라로 보인다. 이 지역에 대한 상세한 측량 정보는 「조선국 남양만 기사(朝鮮國南陽灣記事)」에 실려 있으며, 남양만 측량도가 한 부 남아 있다.⁴³⁾ 이 기록 역시 수로국의 편집 작업을 거쳐 『수로잡지』 제18호에 같이 수록되었다.⁴⁴⁾ 영종도에 대해서는 「조선전도(朝鮮全圖)」에 ‘호도(虎島)’라고 기재한 것이 착오였음을 밝히며 오류를 바로잡았다. 아울러 “원래 성안에 민가 60여 호가 있었는데, 왕년에 운요함의 일거(一擧)로 병요가 발생하여 지금은 겨우 11호가 남았을 뿐이다. 침사가 거주하는 관사도 이곳에 있다가 병요 후 여기에서 1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운요함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성내 변동 상황을 탐문하였다.⁴⁵⁾ 통진(通津)에서 김포로 가는 길은 4리 정도인데, 도로는 진흙탕인 데가 있어서 “야포(野砲)나 치중(輜重)이 통과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다.⁴⁶⁾ 또한 목제 교량도 “야포를 통과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하여 향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두었다. 일본 장교들은 한성 안에 가 있는 동안 조선의 병제(兵制)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수집하려 하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이 많으며, 특히 고루한 한인(韓人)

42) 新里,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43) 「朝鮮國南陽灣記事」,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乙圖 南陽灣」,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44) 海軍少尉 兒玉包孝·高杉春祺 述, 「朝鮮國南岸及西岸畧記」, 『水路雜誌』 第18號, 12~15쪽. 「朝鮮國南陽灣記事」는 ‘南陽灣’이라는 항목으로 해당 내용을 수록하였다.

45) 永宗島及ヒ永宗城,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46) 여기에 소개한 일본 기록상의 1리는 한국에서 10리(4km)에 해당한다.

이 자국 제도를 타인에게 누설하기를 싫어”하는 분위기였다. 몇몇 조선인에게 몰래 듣게 된 병력수는 훈련도감(訓練都監) 5,772명, 금위영(禁衛營) 2,504명, 오위영(五衛營) 2,504명이었다. 무기와 화약은 군기시(軍器寺)에서 제조하며, 훈련은 봄과 가을 두 차례 교외에서 실시하며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⁴⁷⁾

다카오마루가 활동을 마치고 돌아간 후,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는 「석탄위장약조」에 따라 1878년 4월부터 측량선을 조선 연안에 파견하여 “충분히 탐색한 다음 계속해서 개항 답판”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해군성에 하명하여 측량선을 파견하도록 해 달라고 태정대신에게 요청하였다.⁴⁸⁾ 3월 4일 태정대신은 외무성에서 요청한 조선국 함경도와 전라도 연안 측량을 위한 측량선 파견을 허가하였다. 이때 조선으로 파견한 선박이 아마기함으로, 선장은 해군 소좌 마쓰무라 야스타네(松村安種)였다.⁴⁹⁾ 아마기함의 이번 파견에는 해군 중위 요시다 시게치카(吉田重親)와 소위 가토 시게나리(加藤重成), 소위보 고바야시 슌조(小林春三), 육군 소위 가이즈 미쓰오가 동행하였다.⁵⁰⁾ 해군 수로국을 비롯하여 1878년 12월에 설치되는 참모본부(參謀本部)에서 활동하게 되는 장교들이 조선 정탐을 위해 같이 파견하고 있

47) 兵制及ヒ租稅,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48) 1878년 2월 20일 外務卿 寺島宗則—太政大臣 三條實美, 『日本外交文書』 卷11, #139, 284쪽.

49) 1878년 4월 13일 海軍大輔 川村純義—外務卿 寺島宗則, 『日本外交文書』 卷11, #141, 286쪽.

50) 「履入734 吉田中尉外9名進退の件東海鎮守府届」(Ref. Ref. C09112941600), 가이즈는 아마기함을 타고 조선에 갔다가 다시 도쿄로 돌아간 다음, 이해 12월 22일 다시 조선으로 출발하였다고 한다(『西海新聞』 1878년 12월 23일 2면 1단). 가이즈가 이 시기 조선 연안에 대한 정탐과 지도 제작에 해마다 연속으로 파견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시다는 1875년 7월 다이니데이보함(第二丁卯艦)에 승선하여 해군 대위 아오키 스미사네(青木住眞)와 함께 부산 일대를 측량한 결과물로 「朝鮮國釜山港(Korea East Coast FUSAN HARBOUR)」(海軍水路寮 第60號)를 제작하였다.

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아마기함이 측량선으로 조선 연안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방법은 외무성에서 작성한 「측량선 파견목적」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⁵¹⁾ 측량 탐색할 지역의 우선 순위는 함경도 원산진과 북청, 전라도 흥덕과 옥구, 충청도 해미와 결성 지역으로 정하였다. 지역에 갈 때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무성 관원이나 어학생도를 대동하도록 하였다. 통상적인 측량 외에도 해안 지형, 상선 출입과 매매 품목, 호구수와 다수의 종사 직업, 기본 인프라와 운수의 편리 여부 등을 명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문건의 부전(附箋) 가운데 “함경도 측량 순서로 마쓰시마(松島)의 실황은 ‘차이나 디렉토리(China Directory)’에 실린 바와 같은지 여부를 답사하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 아닐 것”이란 문구가 있다. 함경도에 측량을 다녀오는 길에 ‘차이나 디렉토리’라는 구미 측 자료에 소개된 ‘마쓰시마’ 항목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1873년도판 『The China Sea Directory』에 나오는 울릉도(MATU SIMA, Dagelet Island)에 근거한 지시였다.⁵²⁾ 실제로 아마기함이 함경도에서 내려오는 길에 울릉도를 들르면서 경위도를 실측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⁵³⁾ 아마기함은 함경도의 영흥만과 송전만 일대에 대한 측량을 마치고 출항하였다.⁵⁴⁾ 6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릉도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지형을 살펴본 다음 부산으로 귀항하였다.⁵⁵⁾

51) 1878년 4월 16일 寺島 外務卿→河村 海軍大輔, 『日本外交文書』 卷11, #142, 287~289쪽.

52) 한철호, 앞의 논문(2015), 32~33쪽.

53) 한철호, 앞의 논문(2015) ; 박한민, 앞의 논문(2023b).

54) 박한민, 앞의 논문(2023b), 20~25쪽. 일본인들의 측량에 대한 조선 지방관의 인식과 대응은 여기서 상세히 소개하였다.

55) 1878년 7월 4일 外務五等屬 山之城祐長→外務大書記官 田邊太一, 『日本外交文書』 卷11, #145, 292~293쪽.

아마기함은 나가사키로 돌아가 선박 수리를 마친 후, 8월 13일 저녁에 출항하여 다음 날 부산항에 입항하였다.⁵⁶⁾ 부산 관리관 야마노조 스케나가는 동래부사 윤치화(尹致和)에게 서한을 보내 아마기함이 곧 전라도 무안에서 옥구, 충청도 비인에서 결성까지 측량을 하러 출항하므로 조선 각 지방에 관문을 발송해 주의하고 협조할 사항을 알렸다. 여러 곳에 다양한 색상의 측량용 깃발을 설치하더라도 지역민이 괴이하게 여기지 말 것, 측량기계가 파손될 경우 야장(冶場)을 설치하고 장인이 수리와 보수를 하도록 할 것, 측량으로 모사하는 중 심한 더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가옥을 임차할 수 있을 것, 음료수는 항상 필요하므로 가는 곳마다 급수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였다.⁵⁷⁾ 부산에서 통역 아비루 유사쿠(阿比留裕作), 다케다 구니타로(武田邦太郎),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가 승선한 후, 23일 아마기함은 출항하였다.⁵⁸⁾

이날부터 9월 30일 부산으로 귀항할 때까지의 일자별 동향은 「아마기함 승조 중 일지(天城艦乘組中日誌)」에 실려 있다.⁵⁹⁾ 8월 24일에는 전라도 흥양현 삼도(三島), 즉 거문도에 도착하여 촌락 대표들과 만났다. 28일은 비인현에 가서 현감 이용주(李用周)와 만나 문정하는 가운데 옥구만(沃溝灣) 측량 건을 알리고 식량 공급, 길 안내자 고용 건을 요청하였다.⁶⁰⁾ 31일에는 김제군수(金堤郡守) 겸 옥구현감 송기로(宋綺老)가 와서 문정하고 접대를 하였

56) 『橫濱毎日新聞』(1878년 8월 15일 2면 2단) ; 『西海新聞』(1878년 8월 17일 2면 2단).

57) 1878년 8월 15일 署管理官 山之城祐長→東萊府伯 尹致和, 「管理官先示兩南測水事件及發船日期書」, 『同文集考』 卷4 附編 通商(國史編纂委員會 編, 1978), 4155~4156쪽.

58) 1878년 8월 25일 外務五等屬 山之城祐長→外務大輔 森有禮, 『日本外交文書』 卷11, #146, 293쪽 ; 『橫濱毎日新聞』(1878년 9월 13일 2면 3단).

59) 「天城艦乘組中日誌」, 『帝國軍艦天城號朝鮮國沿岸測量一件』(Ref. B07090444500).

60) 1878년 8월 28일, 「天城艦乘組中日誌」.

다.⁶¹⁾ 9월 8일에는 천수만(淺水灣)에 닻을 내렸다. 여기서는 홍주영장 겸 목사 조의인(趙義仁)이 문정을 하러 함선을 방문하였다.⁶²⁾ 다음날에는 부함장과 사관들이 통역 아사야마를 대동하였다. 이들은 작은 보트를 타고 보령(保寧) 지역 수영(水營)에 담수를 탐색하러 나갔다. 수영에서는 이들을 맞아 문정을 실시하였고, 성내의 사공청(沙工廳)으로 이동하여 술과 안주를 내어 접대하였다.⁶³⁾ 홍주 지역에서 아비루 유사쿠는 “깃발을 세우고 석회를 도포하여 측량 표목을 삼고” 측량을 실시하였다. 9월 16일에는 충청도관찰사 사절로 절충장군 박응순(朴膺淳)이 함선에 와서 인근 가옥을 빌려 요양하는 건을 논의하였다.⁶⁴⁾

9월 22일에는 요시다 중위와 아사야마가 결성(結成) 지역으로 측량하러 나갔다. 이들이 산을 넘어가 성호동까지 가자 지역민들이 몰려와 도로를 막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소란이 발생하자 군관들이 와서 제지하면서 요시다 일행과 대화를 나누었다. 조선 관리들은 감영에서 일본인의 측량 건에 대하여 알려 왔지만, 등산과 육로행까지 허가한 적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사야마는 “측수(測水) 방법이 이와 같다”고 하면서 “우리 군함이 이미 각지에 가서 측량을 하였는데, 아직 등산과 육로행을 방해한 부현(府縣)이 없었다”고 하고, 결성 지역에서만 이를 금지한다면 이 행위를 함장에게 보고한다고 답했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정탐 행위를 제지한 것은 결성현감(結成縣監)이 일본 사람들의 산행과 육로행을 스스로 멋대로 허가하지 말라는 지시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문제로 요시다, 아사야마는 결성현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만나서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61) 1878년 8월 31일, 「天城艦乗組中日誌」.

62) 1878년 9월 8일, 「天城艦乗組中日誌」.

63) 1878년 9월 9일, 「天城艦乗組中日誌」.

64) 1878년 9월 16일, 「天城艦乗組中日誌」.

결성현감 : 지난번에 등산 건을 이야기하였는데, 다시 상륙하여 등산하려 한 것은 무슨 일인가?

아사야마 : 이번 측량은 양국 정부의 약조에서 기인하였다. 그러한 것을 이 지역에 제한하여 자유롭게 측량할 수 없다면 우리들이 명을 받드는 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 역시 부득이하야 등산하게 된 까닭이다.

결성현감 : 공들이 지금 등산한다면 나는 머리를 내놓아야 하는 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않더라도 역시 부득이하다.⁶⁵⁾

일본인들의 측량을 핑계로 산에 올라가고, 육로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정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성현감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일본 측은 양국이 조약 체결을 통해 ‘자유로운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정탐 활동을 제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긴장을 누그러트리기 위해서 연회를 연 결성현감은 “주객(主客)의 길은 교린(交隣)의 마땅함을 두터이 하는데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술을 권하였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를 받지 않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제지당한 것을 항의하였다. 해미(海美)와 결성 지역에서 5일 동안 체류하면서 측량과 정탐 활동을 마친 아마기함은 9월 28일 천수만에서 출항, 30일 부산에 도착하였다.⁶⁶⁾ 천수만 일대를 측량하고 견문을 채록한 결과물은 아사야마가 「시을 만 근방 섬 명칭과 견문기」라는 문건으로 남겼다.⁶⁷⁾ 10월 중순 아마기함은 ‘조선해 측량’을 마치고 나가사키로 돌아갔고, 고베를 거쳐 도쿄로 복귀하였다.⁶⁸⁾ 아마기함장 마쓰무라

65) 1878년 9월 25일, 「天城艦乗組中日誌」.

66) 1878년 9월 28일, 30일, 「天城艦乗組中日誌」.

67) 淺山顯藏, 「附錄 ショー灣近傍島名并見聞記」, 『帝國軍艦天城號朝鮮國沿岸測量一件』(Ref. B07090444500)

68) 『東京日日新聞』(1878년 10월 21일 2면); 『東京日日新聞』(1878년 10월 24일 2면).

는 동해진수부사령관 이토 스케마로(伊東祐麿)에게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 측량 결과와 승선 수병들의 상황을 보고하였다.⁶⁹⁾ 아마기함장은 이번에 측량을 지정하였던 해미, 결성, 옥구 지역은 실견한 결과 간만(干滿)의 차이가 크고, 정박할 만한 좋은 항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문서에 보면 수로국에서 연안 측량을 위해서 가토 소위와 고바야시 소위보 두 명을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⁰⁾ 11월 1일자로 해군성에 제출된 아마기함의 출장 결과물로 문서와 제작 지도 11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⁷¹⁾

〈표 1〉 1878년 아마기함 제출 문서와 지도 목록

문서명	수량	비고
전라 충청 양도 중 비인 옥구 결성 해미 지방 견문기 수로잡지(水路雜誌)	1책 1책	
조선국 충청도 천수만문(淺水灣門) 지도	1장	해도 100호 → 해도 74호(1892.04.08.). 측량자로 요시다 중위와 가토 소위 기재
동국(同國) 동도(同道) 결성현 하성호악 약측도	1장	
동국 동도 해미 근해 약도	1장	
동국 전라 충청 양도의 경계 장포강 약측도	1장	
동국 전라도 옥구만 약도	1장	

69) 1878년 10월 1일 天城艦長 松村安種→東海鎮守府司令長官 伊東祐麿, 「外入842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諸港測量等の件東海鎮守府屈」(Ref. C09113084200). 나가사키에 기항한 아마기함은 10월 14일 고베에 입항하였다(『大阪日報』[1878년 10월 18일 2면]).

70) 아마기함장이 승선 장교 명단을 보고하고, 이것을 동해진수부사령장관 해군소장 이토 스케마로가 해군대보 가와무라 스미요시에게 보고한 문건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履入734 吉田中尉外9名進退の件東海鎮守府屈」(Ref. C09112941600).

71) 1878년 11월 1일 東海鎮守府司令長官 伊東祐麿→海軍卿 川村純義, 「外入924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測量略圖取調の件東海鎮守府屈」(Ref. C09113084300).

문서명	수량	비고
동국 천수만문(淺水灣門) 원점과 나침편차 추산부(推算簿)	1책	
동국 천수만문 경위도 추산부(推算簿)	1책	
동국 천수만문 투연부(投鉛簿)	1책	
동국 측량 각소 기사		

* 출처 : 「外入924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測量略圖取調の件東海鎮守府屈」; 小林茂 編, 앞의 책(2017), 51쪽.

2) 1879년 대리공사 도한 당시의 연안 측량과 정탐 활동

1879년에도 하나부사 요시모토를 대리공사로 파견하여 조선의 개항장을 물색하고 선정하려는 협상은 계속되었다. 하나부사 일행이 조선으로 건너가는 데 이용한 함선은 다카오마루와 호쇼함 두 척이었다.⁷²⁾ 하나부사 일행은 3월 31일 요코하마에서 출항하여 고베, 부산을 거쳐 경기도 화성 고온포(古溫浦)에 상륙한 다음 육로를 이용하여 한성의 서대문 밖 청수관(淸水館)에 도착하였다. 한성에서 조선 정부 강수관(講修官)과의 현안 교섭은 6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이어졌다.⁷³⁾

하나부사의 도한 중 개항 적합지 물색을 위한 ‘서안 탐항(西岸探港)’ 작업은 다카오마루와 호쇼함이 수행하였다. 다카오마루에 수로국 관리 네 명이 ‘근해 측량’을 하기 위해서 승선하였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었다.⁷⁴⁾ 이 당시 측량과 정탐 활동을 통해 생산된 문서와 지도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72) 『朝日新聞』(1879년 4월 6일 1면 1단); 『大阪日報』(1879년 4월 9일 2면).

73) 1879년 조일 양국의 교섭 안건과 협상의 진행 과정은 다음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박한민, 「1878년 두모진 수세를 둘러싼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日關係史研究』 39호, 2011.

74) 『東京日日新聞』(1879년 5월 17일 2면).

〈표 2〉 1879년 하나부사 대리공사 도한시 생산된 정탐 문서와 지도 목록

문서명	수량	비고
진강기(鎭江記)	1건	『東京地學協會報告』 1권 수록 (1879.11.29.)
진강약도(鎭江略圖)	1책	
아산기(牙山記)	1건	
조선국 아산묘지(朝鮮國牙山鎬地)	1장	해도 74호 「朝鮮西岸諸鎬地」 수록 (1892.04.08.) 여기서 동경은 '40분' 을 '42분 10 초' 로 수정. 측량자로 아오키 소좌와 요시다 중위 기재
등쌍봉기(登雙峯記)	1건	
신리면기(新里面記)	1건	
자인천경통진입경성약기(自仁川經通津入京城畧記)	1건	
자고온포지한성약도(自古溫浦至漢城略圖)	1장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소장
조선국 경기도 월미도 해협 약측도(朝鮮國京畿道月尾島海峽略測圖)	1장	해도 79호(1877.03.08.) 정보 추가
고동도약측도(喬桐島畧測圖)	1장	해도 133호(1881.04.22.) → 해도 74호(1892.04.08.) 喬桐鎬地. '1879년 다카오마루 약측' 으로 기재하고 수심 표기
송도강견취도(松都江見取圖)	1장	마쓰모토(松本) 해군 소위 제작 (1879.09.06.)
고동기행(喬桐紀行)	1건	
구진(口陳)	1건	
인천항 제물포로 개항장을 삼아야 하는 의견(仁川灣濟物浦ヲ以テ開港場ト成スヘキ意見)	1건	

* 출처 :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 卷3 復命書 ; 小林茂 編, 앞의 책(2017), 51쪽.

5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鎭江)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하나부사는 다카오마루 선장과 호쇼 함장, 곤도 마스키(近藤眞鋤), 이시바타 사다(石幡貞), 가이드 중

위, 통역 나카노 교타로(中野許太郎)와 아사야마를 데려갔다.⁷⁵⁾ 작년에 아마기함이 한산군(韓山郡)까지만 들어가 측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은진현(恩津縣)까지 가서 현감 정기우(鄭基雨)와 만났다. 가이드는 목측(目測)으로 「진강약도(鎭江略圖)」를 제작하였다.⁷⁶⁾ 그는 들렀던 각 지역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별도 기사가 있으니 모쪼록 그것을 보아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곤도가 작성한 「진강기」를 가리킨다. 측량도와 기사를 같이 보아야 금강 유역에 접한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아산만 근방에 대한 탐사와 측량을 진행하였다.⁷⁷⁾ 탐사에 앞서 이들은 아산 현감 이승지(李承旨)와 만났다. 이승지는 “일본인이 내지에 진입하는 일은 조약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선 내지로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⁷⁸⁾ 곤도는 지역별로 가서 채집한 정보를 「아산기(牙山記)」로 남겼다. 「진강기」와 마찬가지로 「아산기」를 집필하는 중에도 곤도는 『팔역지(八域誌)』에 수록된 지명과 비교하여 표기 오류를 바로잡고, 다른 명칭으로 된 지명의 위치를 비정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여기서 거론된 『팔역지』는 이중환(李重煥)이 저술한 『택리지(擇里志)』를 곤도가 부산에서 사본으로 입수한 책자로, 1881년 『조선팔역지(朝鮮八域誌)』란 제목으로 번역하여 간행하는 책의 저본이다.⁷⁹⁾ 다카오마루에서

75) 「鎭江記」,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76) 陸軍中尉 海津三雄, 「鎭江略圖」(1879년 5월),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77) “朝鮮通信”, 『大阪日報』(1879년 7월 15일 3면).

78) 「牙山記」,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79) 靑華山人 著, 近藤眞鋤 譯, 「題言」, 『朝鮮八域誌』, 東京: 日就社, 1881. “왕년에 내가 조선국 부산포에 있을 때 등본 하나를 얻었는데, 팔역지(八域誌)란 제목을 붙여 있었다. 즉, 청화산인이 이를 저술하였다. 이것을 열람하니 팔도 지리, 산천, 시세 변천의 대개를 살필 수 있었다.”(밑줄은 인용자)

는 「조선국 아산모지(朝鮮國牙山錨地)」를 제작하였다. 작성일자는 1879년 5월이며, 동경 126도 40분, 북위 36도 59분 54초, 나침편차 4도 15분 4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⁸⁰⁾ 측량으로 일본 함선이 고온포 지역에 체류한 일자는 20일(二旬)이었다.⁸¹⁾ 측량 결과 고온포는 근처에 “큰 고을과 유명한 마을이 없고 통상의 편의가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곳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⁸²⁾

이외에도 다카오마루 승선 인원은 9월 3일부터 교동도 내 화개산(華蓋山)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지역을 측량한 아오키 함장은 「교동도약측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는 작성 날짜가 1879년 9월로만 기재되어 있다.⁸³⁾ 여기에도 동경과 북위, 나침편차 등의 측량 정보를 같은 양식으로 표를 만들어 정리하였다. 교동도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탐 내역은 「교동기행」에 수록하였다. 이외에도 9월 6일 예성강 하구까지 정탐하고 마쓰모토 해군 소위가 「송도강견취도(松都江見取圖)」를 작성하였다.⁸⁴⁾ 두 지역에 대한 측량과 정보 수집은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이루어졌다.

호쇼함장 야마자키 가케노리(山崎景則)는 작년에 아마기함이 기항하였던 비인만과 금강, 천수만을 재차 탐사하면서 조류의 흐름과 지세 등은 작년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여 항구로 삼을 만한 좋은 데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서는 “충분히 해도를 열람하

80) 「朝鮮國牙山錨地」,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81) 「牙山記」,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1879년 6월 4일 代理公使 花房義實-禮曹判書 沈舜澤, 「代理公使測量古溫浦海灣後請令隨員早路赴京代觀地理書」, 『同文彙考』卷4 附編 通商, 4156쪽. “我政府玆據修好條規第五款, 命本官就貴國忠淸 京畿兩道間海岸, 探良港指定通商要地, 以五月十三日泊船古溫浦, 測量海灣者既及二旬, 略竣其功矣.”

82) 「牙山記」,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83) 「喬桐島畧測圖」,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3 復命書.

84) 박한민, 앞의 논문(2013), 291~292쪽.

여 숙고해 보더라도 축조 비용이 약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단연코 제물포를 개항장으로 정하는 것”이 다른 장소보다 낫다고 판단하였다. 제물포와 월미도 사이에 부두를 축조하고 도크(Dock)를 만드는 편이 선박 수리와 물자의 육지 운송에 편익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제물포 내 거류지가 “번식(繁殖)하여 협애”해지면 가옥과 창고 등의 시설을 확장, 증축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⁸⁵⁾

두 함선의 연안 측량은 「인천만 제물포로 개항장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조선국 경기도 월미도 해협 약측도(朝鮮國京畿道月尾島海峽略測圖)」 작성으로 이어졌다. 의견서는 다카오마루 선장 아오키 스미사네와 호쇼함장이 연명으로 작성하였다.⁸⁶⁾ 먼저 진강(鎭江)의 만과 하천을 아마기함이 전해 약측(略測)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시찰하였지만, 하천과 만 모두 “좋은 항구(良港)가 아니므로 측량을 중지”하였다. 아산만(牙山灣) 지역도 “애초에 좋은 항구가 아니지만” 격랑의 우려가 없는 지세이고 접근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지만 우선 가능한 항만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측량을 실시”하였다. 인천만의 해안은 “보트로 곧바로 착안하여 왕래할 자유가 있고, 일찍이 진강과 아산에 비할 곳이 아닌 천연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부두를 신설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해륙 모두 경성에 가깝고, 왕복이 가장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안은 개항장으로 삼기에 충분하며 가장 좋은 장소”라고 판단하였다. 이 소식은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85) 1879년 5월 17일 海軍少佐 山崎景則—花房 代理公使, 「口陳,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 卷5 仁川開港.

86) 1879년 6월 25일 高雄丸船長 海軍少佐 青木住眞鳳翔艦艦長 海軍少佐 山崎景則—代理公使 花房義實, 「仁川灣濟物浦ヲ以テ開港場ト成スヘキ意見,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 卷5 仁川開港.

서 1주일 동안 나가사키로 회항한 다카오마루발 통신으로 언론에 “개항장에 적당한 지역을 측량하여 이윽고 경기도 인천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⁸⁷⁾

의견서에 첨부된 「조선국 경기도 월미도 해협 약측도」에는 영종도, 물치도, 월미도, 사도, 제물포 등의 수심 곳곳을 측량한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 육필로 기재된 지도의 영문 제목은 ‘West Coast of Korea The Sketch of OLEE STRAIT’이었다. 이 지도의 제작자는 다카오마루에 승선한 미우라 기신(三浦義深) 해군 소위보와 아라키 료이치(荒木亮一) 해군 소위보 외 한 명이였다. 작성일자는 1879년 9월이었다. 아울러 1876년 8월 당시 측량한 결과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26도 33분 50초’, ‘간만 차이 29척’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측량자는 해군 대위 나카무라 유헌(中村雄飛)와 소위 고다마 가네타카, 대위 반 마사토시(伴正利)였다.⁸⁸⁾ 아울러 항산도(項山島)의 투묘지에 이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해군 수로국에서 기재한 내용까지 나온다. 이렇게 조선 연안을 측량하는 작업을 해온 다카오마루는 1880년 3월 미쓰비시회사(三菱會社)에 매각된다는 소문이 먼저 돈 후, 히젠(備前)의 호상 세 명이 대가 17만 엔을 일본 정부에 지불하고 이 선박을 구입하였다.⁸⁹⁾ 1880년대 초반 조선 연안에 주기적으로 파견되어 정탐 활동을 전개하는 역할은 주로 아마기함이 담당하였다.

87) 『郵便報知新聞』(1879년 7월 14일 2면 4단).

88)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는 「朝鮮國京畿道月尾島海峽」이란 제목의 지도로 소장되어 있으며, 간행 연도는 1877년 3월, 해도 ‘제79호’로 난외에 기재되어 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89) 『朝日新聞』(1880년 3월 19일 2면 1단) ; 『朝日新聞』(1880년 3월 23일 2면 1단).

3. 1880년대 아마기함의 조선 연안 파견과 정탐 활동

1880년 2월 초부터 일본 언론은 아마기함이 조만간 ‘조선해(朝鮮海)’를 도항해 부산과 원산으로 간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⁹⁰⁾ 이해 4월 해군경(海軍卿)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는 아마기함장 다키노 나오토시(瀧野直俊)에게 8개 조항의 훈령을 내렸다. 아마기함의 조선 파견은 이번에 새로 개항하게 된 함경도 원산진과 관련하여 거류민의 보호와 무역 편리 도모에 있었다(제1조). 원산진으로 부임할 예정인 마에다 겐키치(前田獻吉) 총영사와 부산에서 만난 후 그를 태우고 원산에 다녀오도록 지시하였다(제2조). 부산에서 원산까지 다녀오는 연안에 500~600톤 규모의 범선이 정박할 만한 항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제3조). 조선으로 도항한 이후 해군 이외의 관리 승선, 소총 사격이나 대포 발사 훈련 등 필요한 업무는 조선 재류 총영사나 영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했다(제5조~제7조). 만약 조선인들이 거칠고 사나운 행동을 할 경우에는 경계망동을 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여 총영사나 영사에게 통첩하도록 지시하였다(제8조).⁹¹⁾ 조선에 파견된 이후에는 부산과 원산 주재 외무성 관리와 협의하여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물론 아마기함의 기본 업무는 항만 탐색과 측량, 지도 제작에 있었다.

90) 『大阪日報』(1880년 2월 1일 3면) ; 『郵便報知新聞』(1880년 2월 6일 2면 3단) ; 『郵便報知新聞』(1880년 2월 9일 2면 2단).

91) 1880년 4월 海軍卿 榎本武揚→天城艦長 海軍少佐 瀧野直俊, 訓令, 「往出521 天城艦出發日限の件に付外務省へ申入」(Ref. C09114128400) ; 『花房義實關係文書』M/F 406-5.

조선국 연해(沿海) 순항 중에는 원산 총영사, 부산 영사와 상의하여 두 곳 거류민의 안녕을 보호하고, 무역의 편리를 도모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한(餘閑)으로 강원도, 경상도의 동안(東岸)에서 선박 피난을 충족할 수 있는 항만을 탐색하고, 그 위치를 정하여 형상을 살피는 일에 종사하며 정밀한 지도(精圖)를 작성하여 훗날의 준거로 삼는 일에 힘써야 한다. … 단, 공사 담판의 형세에 따라 군함의 체박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부산으로 복귀하여 전 조관에 기재한 내용의 준비와 더불어 측량(測量)에 종사해야 한다.⁹²⁾ (밑줄은 인용자)

4월 18일 요코하마에서 출항, 다음날 고베에 입항해 3일간 정박한 아마기함은 5월 3일 부산에 착함하였다.⁹³⁾ 5월 18일 부산에서 출항한 아마기함은 20일 원산에 도착하였다. 6월 2일 원산진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출항하였는데, 도중에 기상 악화로 인하여 아마기함은 강원도 통천군 장전동(長箭洞)에 잠시 기항하였다. 이 지역에서 이틀 동안 ‘항구 탐색’을 실시하면서 “해안선과 수심에 대한 약측(略測)을 실시”하였다. 4일 이곳에서 출발한 후 아마기함은 5일 아침 “울릉도(鬱靈島, 우리나라[일본-인용자]에서 마쓰시마[松島]라 칭하는 곳) 근방으로 회항”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울릉도’와 ‘마쓰시마’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킨다. 울릉도로는 1878년에 이어 두 번째 항해였다. 아마기함 승선 장교들은 울릉도에 “항구와 정박지 등이 없고 단지 동쪽 해변에 작은 만(灣)이 있어서 좋은 날씨라면 보트를 타고 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짧게 기술하였다. 아마기함은 울릉도에서 경상도

92) 天城艦への訓條大意, 『往出521 天城艦出發日限の件に於外務省へ申入』(Ref. C09114128400); 『花房義實關係文書』 M/F 406-5.

93) 『東京日日新聞』(1880년 4월 19일 2면); 『大阪日報』(1880년 4월 22일 2면); 『大阪日報』(1880년 4월 23일 2면); “朝鮮釜山浦通信”, 『東京日日新聞』(1880년 5월 21일 3면).

영해 지역으로 이동하여 항구 탐색을 계속한 다음, 6월 7일 부산에 도착하였다.⁹⁴⁾ 부산항 정박 중에는 거류지 ‘수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내 개최 행사에 승선 사관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⁹⁵⁾ 아마기함은 부산과 원산을 왕래하며 울릉도를 비롯하여 곳곳을 측량하고 항구를 탐색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6월 19일에는 웅천(熊川) 지방에 가서 아마기함장과 승선원들이 웅천 현감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기상 악화로 잠시 부산에 복귀한 다음 23일에는 울산에 들른 후 원산으로 향하여 25일 입항하였다.⁹⁶⁾ 측량도 제작 작업은 1882년 연말까지 계속하였다. 이것은 아마기함에서 제출한 「조선국 남양만 마산포 약측도(朝鮮國南陽灣麻山浦略測圖)」로 확인할 수 있다.⁹⁷⁾ 중함대사령관 니레 가케노리(仁禮景範)는 새로운 실측도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개항이 확정된 제물포보다 마산포가 “오히려 나온 점은 없다”고 판단하였다.⁹⁸⁾ 이 무렵부터 조선의 각 개항장을 순시하며 현지에서 탐문한 조선 국내의 정세 변동까지 정리하여 보고하는 양상을 아마기함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다케조에 변리공사 도한 시기 인천 정박과 정세 보고

1882년 7월 23일 임오군란 발발 이후 일본 정부는 반조함,

94) 1880년 6월 9일 海軍少尉補 小掠元吉海軍少尉 有川貞白海軍少尉 三浦重郷→水路局長 柳樽悅水路局副長 件鐵太郎, 「外入313 天城艦乗組三浦少尉外2名より報告書水路局届」(Ref. C09114129500).

95) 『西海新聞』(1880년 7월 1일 2면).

96) 『西海新聞』(1880년 7월 3일 2면); “朝鮮通信 元津山發”, 『東京日日新聞』(1880년 7월 30일 3면).

97) 1882년 12월 25일 海軍卿→太政大臣, 朝鮮國南陽灣麻山浦略測圖上呈, 「普4169の3 水路局へ通牒 朝鮮國麻山浦測量圖を天城艦にて調製済」(Ref. C09103597500).

98) 1882년 12월 16일 中艦隊司令官 海軍少將 仁禮景範→海軍卿 川村純義, 朝鮮國南陽灣麻山浦測量圖ニ付上申, 위의 문서(Ref. C09103597500).

닛신함(日進艦), 곤고함(金剛艦), 히에이함(比叡艦), 세이키함(清輝艦), 모순함(孟春艦), 아마기함 등을 조선에 파견하였다.⁹⁹⁾ 함선에 장교를 승선시켜 조선 현지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때 조선에 건너간 참모본부 소속 호리에 요시스케(堀江芳介) 대좌는 ‘지리실사와 기타 정탐’을 할 목적으로 이소바야시 신조(磯林眞三) 외 3명의 장교를 하나부사 공사가 인천부에 갈 때 동행하도록 하였다. 호리에도 ‘지리연구’를 위해 인천부에 다녀왔다.¹⁰⁰⁾ 이소바야시 일행은 제물포에서 강화도에도 다녀왔는데, 호구 1만 가운데 병력 3천 명이 있으며, 성내에 3백 명이 상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¹⁰¹⁾ 이소바야시 대위는 한성 입경 후 ‘남대문 바깥의 지리 연구’를 실시하였고, 호리으로부터 “지리 실사의 건을 시기에 따라서 적당히 착수”하라는 지시도 받아 정탐 활동을 전개하였다.¹⁰²⁾

조선과의 협상을 통해 사태 수습을 마친 일본 정부는 거류민 보호를 목적으로 군함 두 척이 조선의 개항장에 정박해 있도록 하였다. 그 가운데 한 척은 인천항에 가서 항시 정박해 있도록 지시하였다.¹⁰³⁾ 이해 11월 30일 아마기함은 바칸(馬關)으로 귀항

99) 하나부사 일행의 인천 도착 이후 보고를 위해 부산으로 돌아가거나 원산진으로 기항한 함선별 동향은 니레 해군소장의 전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산 지역은 여기에 정박 중인 아마기함만으로는 1,400~1,500명의 거류민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병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본국에 요청한 마에다(前田) 부산총영사의 서한 내용도 미야모토(宮本)가 시모노세키에서 타전한 전보 속에 남아 있다. 1882년 8월 24일 宮本 電報, 『大木喬任關係文書』 書類の部 36-8(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1882년 9월 2일 仁川 仁禮 海軍少將→川村海軍卿, 같은 문서.

100) 西村榮雄 編, 『堀江芳介壬午軍亂日記』, 山口縣: みずのわ出版, 2018, 21쪽, 8월 13일 기사.

101) 西村榮雄 編, 앞의 책, 45쪽, 9월 1일 기사.

102) 西村榮雄 編, 앞의 책, 54쪽, 9월 11일 기사; 같은 책, 58쪽, 9월 13일 기사. “兼而御示諭申置候 瀬戸口 磯林 地理實査之儀時期見計着手被致度事”

103) 丙號ノ四 1882년 11월 13일 太政大臣 三條實美→海軍省, 「3月9日 朝鮮國近景等報告の義に付御届」(Ref. C10100941600).

하여 인천과 부산 지역 동향을 탐지한 결과물로 「조선국 근시 경황 보고」를 해군성에 송부하였다. 가와무라 스미요시(川村純義) 해군경은 이 문건의 내용을 외무경에게도 회람함과 동시에 태정대신에게도 보고하였다.¹⁰⁴⁾ 이듬해 1월 17일에는 일본 정부 내 참의(參議)들에게도 이 문건을 회람하여 조선 정세에 대한 정보를 일본 정부 내에서 공유하였다.¹⁰⁵⁾ 「조선국 근시 경황 보고」에서는 현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물포에서 영사관 건축이 진행 중이며, 전 ‘훈련대장’ 저택을 공사관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육군 소대 병력이 경비를 위해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⁰⁶⁾ 청국 측 동향과 관련해서는 함선이 매달 6회 텐진(天津)에 가서 보고하거나, 상하이(上海)에 가서 군수품을 운반해 온다고 기록하였다. 근래에 조선 정부에서 척화비(斥和碑)를 제거하였다는 점도 특기하였다. 조선 정계 내 정치 세력은 친청파(親淸派)가 정부 내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친청파 인사로는 김윤식(金允植), 조영하(趙寧夏), 어윤중(魚允中), 김굉집(金宏集)을 들었다. 임오군란 이후 외척 민태호(閔台鎬)는 민응식(閔應植)·민긍식(閔肯植) 형제와 달리 처신하여 국왕과 왕비로부터 배척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민영익(閔泳翊)은 “일본당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친청파에 대항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청국 보정부(保定府)에 유폐된 대원군 외에 왕족 이재원(李載元)과 이재면(李載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들은 ‘현명하지 않다’거나

104) 1882년 12월 26일 海軍卿 川村純義→外務卿 井上馨 海軍卿 川村純義→太政大臣 三條實美, 普第4136號ノ3,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105) 1883년 1월 17일,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106) 임오군란 발발 이후 8월 16일 하나부사 공사 일행과 호위 병력이 입경하여 숙소로 삼은 곳은 진고개(泥岬)에 있던 전 금위대장(禁衛大將) 이종승(李鐘承) 집이었다. 西村榮雄 編, 앞의 책, 25쪽, 8월 16일 기사; 花房義質, 「辦理公使日承」(1882), 『花房公使朝鮮關係記錄』 卷7, 8월 16일 기사.

‘완고’하다는 평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부산포를 잠깐 들렀을 때의 조일 상인 간의 교역 현황은 ‘점차 번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의 대일 수출품은 콩과 쌀이며, 곡물 매입은 조선 동전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지 않다고 소개하였다.¹⁰⁷⁾

12월 28일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변리공사는 4차 수신사(修信使) 박영효(朴泳孝) 일행과 요코하마를 출발, 이듬해 1월 5일 제물포에 도착하였다.¹⁰⁸⁾ 이로부터 5일 후 다케조에는 고종을 알현하고 국서(國書)를 바쳤다.¹⁰⁹⁾ 국서 봉정 소식은 2주 후 일본 정부에도 알려졌다.¹¹⁰⁾ 1월 19일 아마기함장은 인천에서 근황 탐문을 하였다. 한성과 제물포 모두 평온한 상태라고 하면서 외무성 관리들의 출항과 부임 소식, 조선 정부의 신설 아문으로 ‘내무기무아문’과 ‘외무기무아문’, 직책에 임명된 관리 명단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이 가운데 독일인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에 대하여 “이번에 조선국에 와서 자국 풍속을 바꾸어 조선의 의관을 입고 그 나라 직책을 받들어 내외의 기무에 참여”한다고 소개하였다. 뮐렌도르프의 ‘목린덕(穆麟德)’이란 이름은 조선 정부에서 만든 한자식 표기란 점도 부기하였다.¹¹¹⁾

2월 12일자 보고에서는 조선의 ‘개혁아문’에 대하여 좀 더 세

107) 朝鮮國近時景況之報告, 「普4136の2 太政官屈 天城艦仁川釜山等停泊中探知の景況」(Ref. C09103598300);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108) 杉村濬, 『杉村君日記』(日本 栃木縣佐野市郷土博物館 所藏), 1883년 1월 5일; 박한민, 「유길준 《世界大勢論》의 전거와 저술의 성격」, 최덕수 외 지음,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65쪽.

109) 竹添進一郎, 『赴韓日記』, 1883년 1월 10일(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杉村濬, 『杉村君日記』, 1883년 1월 10일.

110) 公第15號 1883년 1월 24일 外務卿 井上馨→太政大臣 三條實美,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111) 城3第10號 當灣近況之報告, 1883년 1월 19일 天城艦長 瀧野直俊→中艦隊司令官 仁禮景範,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부적으로 명단을 제시하였다. 관서는 ‘군국사무아문’과 ‘총리교섭 통상사무아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직책과 담당자, 의정부 및 지방관, 6조 관리의 명단을 나열하였다.¹¹²⁾ 1월 24일 민영익이 중국으로 출항한 목적은 ‘해관세(海關稅) 조사’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파악하였다.¹¹³⁾ 이 외에는 장악원(掌樂院)에 주둔 중인 일본 병사 가운데 각기병에 걸려서 사망한 자가 다섯 명, 치료를 받는 자가 1중대 안에 50명이나 된다는 소식을 전달하였다. 아마기함은 2월 17일 제물포에서 출항하였다.¹¹⁴⁾

2월 21일 아마기함장은 니레 중함대사령관에게 조선 내 상황을 견문하여 보고하였다.¹¹⁵⁾ 조선 정부 내에서 ‘완고당(頑固黨)’은 그대로인데, ‘개화당(開化黨)’은 일본과 중국으로 나누어져 “알력이 심한” 상태라고 보았다. 국왕의 특단으로 불필요한 관리와 과세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무상의 가난함” 때문에 조선은 “충분히 개화에 이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개혁을 단행한 관서와 직원 명단은 ‘군국사무아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기존 관서의 보직자 명단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을 ‘홍순박(洪淳朴)’으로 오기(誤記)한 것만 제외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한 명단이였다. 민영익과 뮐렌도르프의 상하이행은 관세 조사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국과의 조약 체결과 100만 엔 정도의 외국채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도 듣고 있다고 적었다. 함경도에서는 초적(草賊)이 안변(安邊) 지역에

112) ‘군국사무아문’은 통리군국사무아문, ‘총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정확한 기구 명칭이다. 조선 정부는 1883년 1월 12일에 통리내무아문과 통리아문을 각각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개칭하였다. 한철호, 『한국 근대 개화파와 통치기구 연구』, 선인, 2009, 181쪽.

113) 城3第17號 韓京并二仁川灣近時之景況報告, 1883년 2월 12일 天城艦長 瀧野直俊→中艦隊司令官 仁禮景範,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114) 杉村濬, 『杉村君日記』, 1883년 2월 17일.

115) 1883년 2월 21일 朝鮮政府及京城近時之景況報告, 天城艦長 瀧野直俊→中艦隊司令官 仁禮景範,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준동하여 관찰관(辦察官)과 일본인 거류지를 습격하러 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원산 주재 마에다 영사가 호위 군함을 요청한 사실도 기록하였다. 실제로 원산 재류 일본인 가운데 일부가 ‘한행이정(間行里程)’을 벗어나 안변 지역까지 진입하였다가 조선인들과 충돌하여 살상 사건으로 이어진 사건이 1882년 3월 31일에 발생한 적이 있었다.¹¹⁶⁾ 안변에서 초적이 습격하러 올 수 있다고 하는 풍문을 듣고 마에다가 호위 병력을 원산에 파견하도록 요구한 데에는 전년에 경험한 사건의 기억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마기함은 히에이함(比叡艦)과 교대하기 위해 바칸으로 회항하였다.¹¹⁷⁾ 1월과 2월 중 제물포에 정박하면서 아마기함장이 견문하여 채록한 보고 문건은 3월 20일 니레 중함대 사령관이 가와무라 해군경에게 일괄 제출하였다.¹¹⁸⁾

나. 마에다 부산총영사 일행의 남해안 시찰과 신문보도

1883년 당시 아마기함은 인천에만 정박해 있지 않았다. 이해 4월 6일에 아마기함은 이미 부산에 정박 중이었고, 동래부사는 본인의 환갑 연회에 마에다 총영사와 함께 다키노 나오토시(瀧野直俊) 아마기함장을 초청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¹¹⁹⁾ 4월 17일부터 5일 동안 경상도 남해 연안의 통영(統營)과 거제(巨濟), 마산포(馬山浦)를 순시하였다. 통영으로의 항해는 이미 1880년 11월 28일에 한 차례 있었다. 이때 통영의 중군 우후 김병철(金炳哲)이 문정을 위해 함선을 방문하였다. 김병철은 아마기함의 선체

116) 박한민, 「개항장 ‘間行里程’ 운영에 나타난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國史研究』 165호, 2014, 150~156쪽.

117) 『朝野新聞』(1883년 3월 2일 1면 4단).

118) 1883년 3월 20일 中艦隊司令官 仁禮景範—海軍卿 川村純義, 「朝鮮國近景等報告の義に付御届」(Ref. C10100941600).

119) “朝鮮通信”, 『郵便報知新聞』(1883년 4월 24일).

내부를 둘러보고, 공포 발사와 보트 훈련, 총기 사용법 등을 관람하였다. 통제사 측은 백미와 계란 등의 식품류를 증여하였고, 아마기함에서는 답례로 이불, 부채 등을 주었다고 한다.¹²⁰⁾ 1883년 아마기함에는 마에다 겐키치 총영사, 니시(西) 해군 중위, 통역 쓰노에 나오키(津江直助), 혼간지 별원(本願寺別院)의 오타 유키(太田祐慶), 스즈키 준켄(鈴木順見), 조선인 통역이 승선하였다. 조선인 통역은 동래부사가 통제사에게 보낸 서류를 휴대하였다. 마에다 총영사의 종자로 일행을 따라간 자가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한이 센타로(半井泉太郎)로, 그는 기행을 다녀온 후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 기사를 투고하였다.¹²¹⁾

마에다 일행은 4월 17일 오후 6시 통영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다키노 아마기함장과 사관 10명, 니시 중위 등의 일행이 상륙하였고, 통제사 이원희(李元會)와 만났다.¹²²⁾ 19일에는 통제사의 종사관 심의영(沈宜永)과 면담을 한 후 3도 소관 병력 3만 5,878명, 대소 선함 548척, 성 내외의 인구 3만 2천여 명, 지역 특산물, 시장 개설 등을 조사하였다. 20일에는 물길안내인을 소개받아 거제로 이동하였다. 도착 후 마에다 총영사와 아마기함장, 통역 등의 수행원이 상륙, 제승루(制勝樓)에 올라 거제부 백 윤영규(尹泳奎)와 만났다.¹²³⁾ 21일에는 마산포로 이동하였다. 마산포는 “영국인이 가장 주목할 정도”의 장소로 “항구가 꽤나 광대”한 곳이었다. 이들은 창원부백(昌原府伯) 최치영(崔致永)을 만나러 보트를 이용하였다. 마에다 총영사와 사관들, 통역 등이

120) 『東京横濱毎日新聞』(1880년 11월 27일 2면 4단).

121) 『朝日新聞』 특과원으로 부산에서 오래 활동한 한이 초스이(半井桃水)의 전반적인 활동은 다음 연구가 상세하며, 1883년 당시 마에다 일행의 경남 연안 지역 시찰에 참여한 내용도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上垣外憲一, 『ある明治人の朝鮮觀 : 半井桃水と日朝關係』, 東京: 筑摩書房, 1996.

122) 『朝日新聞』(1883년 5월 4일 3면 4단~4면 1단).

123) “在朝鮮釜山半井泉太郎紀行(昨日の續)”, 『朝日新聞』(1883년 5월 6일 3면 4단~4면 1단).

동행하였다. 마산포의 호구수는 3천 5백 명으로 상인들이 많으며, 물산으로는 곡물과 목면, 사금이 나오는 지역이 있었다. 최치영은 종자들을 데리고 답례차 아마기함을 방문하였고, 함선 내부를 둘러본 후 돌아갔다. 다음 날 오전 8시 아마기함은 마산포에서 출항, 정오에 부산으로 귀항하였다. 기행문의 필자는 통영과 마산포 근처에 일본 군함이 들렀다고 하여 상륙을 거절당하거나, 조선인이 돌팔매질로 공격하는 일 없이 우호적으로 맞이해 준 점에 대하여 조일 양국의 교제가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친밀해짐을 강조하려는 입장에서 서 있었다.¹²⁴⁾ 부산으로 복귀한 아마기함은 5월 20일 제물포에 잠시 들른 다음 나가사키로 돌아갔다.¹²⁵⁾ 6월 9일에는 고베로 이동한 다음 도쿄로 돌아가는 일정을 밟았다.¹²⁶⁾ 이해 10월 인사 발령으로 다키노 아마기함장은 아즈마함장(東艦長)으로, 곤고함 부함장(金剛艦副長) 미우라(三浦) 소좌가 아마기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¹²⁷⁾

1888년 6월 20일 한성에서 ‘유아납치’ 소동이 벌어지면서 불온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아마기함과 반조함에서는 곤도 마스크 주한 일본공사의 정식 파견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장을 해제한 채 ‘시찰’을 명분으로 삼아 병력을 도성 안으로 들여보냈다가 급히 철수시킨 적이 있었다.¹²⁸⁾ 갑신정변 발발 후 청과 일본이 1885년 체결한 「텐진조약(天津條約)」에 따라 병력 파견을 공문으로 상대국에 사전 통고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124) “在朝鮮釜山半井泉太郎紀行(一昨日の續)”, 『朝日新聞』(1883년 5월 8일 3면 4단~4면 1단); 上垣外憲一, 앞의 책, 212쪽.

125) 杉村濬, 『杉村君日記』, 1883년 5월 20일.

126) 『朝日新聞』(1883년 6월 12일 1면 2단).

127) 『朝日新聞』(1883년 10월 12일 1면 1단).

128) 박한민, 「1888년 ‘유아납치’ 소동의 전말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109호, 2018, 422~426쪽.

사례는 아마기함이 조선의 각 개항장을 왕래하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하는 국면마다 관여하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4. 맺음말

1890년대 들어서 아마기함이 다시 조선에 파견되어 지역에 대한 정황을 보고하는 기록은 청일전쟁에서 평양 전투가 진행되던 9월에 나타난다. 9월 20일 아마기함장 하야사키 겐고(早崎源吾)는 상비함대사령관 이토 유코(伊東祐亨)에게 9월 15일부터 5일 동안 대동강 경비를 위해 어은동(漁隱洞) 일대에서 전개한 활동을 보고하였다.¹²⁹⁾ 9월 15일은 평양 전투가 시작된 날이었다. 대동강 입구를 경비하는데 아마기함 외에 반조함과 야마시로마루(山城丸)를 동원하였다. 대동강과 철도(鐵島) 일대는 이미 1889년과 1890년에 반조함이 수심과 지형을 측량한 결과물에 기초해 해군 수로부는 해도 제148호(1891년 9월)과 제149호(1890년 10월), 제151호(1891년 1월), 제59호(1893년 5월)를 각각 간행하였다.¹³⁰⁾ 따라서 간행된 해도를 함선마다 구비하여 정

129) 1894년 9월 20일 天城艦長 早崎源吾→常備艦隊司令長官 伊東祐亨 軍艦天城大同江回航報告, 「明治28年 朝鮮國派遣中特別書類 連合艦隊司令長官(14)」(Ref. C08040631400).

130) 해도 제148호 「朝鮮西岸 大同江」; 해도 제149호 「朝鮮西岸 大同江口」; 해도 제151호 「朝鮮西岸 大同江 鐵島錨地」; 해도 제59호 「朝鮮西岸 延平列島至大同江」. 반조함의 1889년 측량에는 해군 소좌 다카키 히데지로(高木英次郎), 해군 대위 미우라 시게사토(三浦重郷), 해군 대위 오카베 류조(岡部柳造), 1890년에는 해군 소좌 다카키 히데지로, 해군 대위 스즈키 다마키(鈴木環), 해군 소위 오타 산지로(太田三次郎)가 참여하였다. 1890~1891년 해도 간행 당시 수로부장은 해군 대좌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였다.

박지 내의 함대 운용에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6일에는 철도, 17일에는 기진포(棋津浦) 일대까지 보트를 보내 정찰 활동을 하였다. 이때 황해도 안악군(安岳郡) 중영장(中營將) 토포사(討捕使) 아문 외막(外幕) 김광찬(金光燦)과 박영숙(朴永叔)이 위문을 한다면서 아마기함을 방문하였다. 이들과 접촉하면서 육군 병력의 이동 등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하였다. 18일에는 해양도(海洋島) 부근에서 함대의 개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음, 강의 경비를 위해 투묘지를 석도(席島)로 옮겼다. 19일 함선이 기진포로 이동한 후, 병참부 사령관 육군 기병소좌 야마가타 요시아키(山縣則顯)가 함선을 찾아와 평양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육지에서 전투 소식이 함선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인근 지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차가 적지 않게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야마가타의 전언에 따르면 9월 15일 전투는 새벽부터 시작되었고, 해가 질 무렵 청국군이 백기를 게양한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야간에 불의의 급습이 있어 여기에 전군이 분격하여 다음 날 새벽 평양성으로 입성하였다. “적군의 사상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고, 사체가 도로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일본군에서는 “중위 아무개 한 명이 즉사하고, 기타 사상자는 중대마다 5~6명 정도의 비율”이었다고 기록하였다. 9월 16일 육군에서 평양 전투 직후 현지에서 상황을 전보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아마기함장의 전언과 비교해 볼만하다.

사단은 양식 운수의 커다란 곤란에도 불구하고, 각도에서 평양을 향하여 전진하여 어제 도착한 성의 사면을 포위하고 격렬한 전투를 하던 중 큰 승리를 얻어 오늘 아침 미명으로 완전히 이를 약취(略取)하였다. 적의 대장 좌보귀(左寶貴) 이하 사상, 생포. 기타 병기, 미곡으로 우리 수중에 떨어진 것이 극히 다수이다. 적의

병력은 2만을 칭하는데, 어제 이래 무리 한 둘을 이루어 우리 초병선(哨兵線)에서 도망하였을 뿐이다. 기타는 대개 사상 및 포로가 되었다. 우리 군의 사상은 장교 이하 약 3백 명이다.¹³¹⁾

평양에서의 승전 소식을 접한 후 아마기함장은 다시 어은동으로 복귀하여 강 입구의 경비를 계속하였다.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 군령부장(軍令部長)의 명을 받고 다음 날 아마기함은 어은동에서 닛을 올려 출항하였다.

이 글에서는 1870년대 하나부사 외무대승이 초량 왜관을 일방적으로 접수하러 조선에 파견될 때 승선하였던 가스가함의 활동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1875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운요함의 도발 사건 이후 이듬해 2월에는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었다. 부산 외 두 곳의 개항장을 탐색하기 위해서 조선에 파견되었던 다카오마루, 아마기함 등 일본 군함이 연해에서 어떠한 측량 활동을 벌이고,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을 남겼는지 관련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측량 기록은 해도로 작성되었고, 해를 거둬서 측량 작업을 거둬하면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증수(增修)하는 과정을 거쳤다.¹³²⁾ 또한 「항해일지」 가운데 일부 내용을 편집, 가공하여 『수로잡지』와 같은 연속간행물에 게재하면서 항해 관계자의 활용도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나갔다. 여기

131) 1894년 9월 16일 오후 1시 50분 中和發 野津 師團長 電報, 「明治28年 朝鮮國 派遣中特別書類 連合艦隊司令長官(14)」(Ref. C08040631400).

132) 이 글에서는 군함의 활동에 집중하여 다루지 않았지만, 1884년 12월부터 1885년 1월 사이 육군 참모본부 측량국(測量局)에서 10만분의 1 축척으로 제작한 한성, 부산과 원산 지역 지도는 선행연구에서 육군 장교 와타나베 노부루(渡邊述)와 가이즈 미쓰오가 제작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해당 지도는 「釜山近傍略圖」(4장)와 「元山近傍略圖」(5장), 「漢城近傍之圖」(6장)이다. 이 지도는 청일전쟁 당시 제2군 사령관이었던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문서에 들어 있다. 『大山巖文書』 60-232425(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小林茂·岡田郷子, 앞의 논문(2008), 21쪽.

서는 조선 연안을 측량하였던 여러 일본 군함 가운데 아마기함이 18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전개한 정탐에 주목하여 활동상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였다. 개항 초기 조선 연안의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항해일지와 견문록, 해도를 작성한 흔적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함선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파견한 함선의 정탐 활동을 동해 연안과 울릉도 측량,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등의 특정 소재로 국한하여 접근한다면 개항 초기 일본 군함의 정탐과 측량 활동 전반을 규명하는데 오히려 시야를 좁히고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측량 정보의 축적과 연속성은 이듬해 다른 함선의 개항장 선정에서도 기록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조선 연안을 수시로 왕래한 일본 함선의 측량 기록은 좀 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적 구성의 연속성 등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1880년대 조선의 개항장에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정박하는 일이 빈번해 지면서 조선 내부의 정치 변동이나 지역 사회의 분위기 등에 대한 탐문까지도 진행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본국에 보고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아마기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한 국면마다 함선별로 조선의 각 개항장에 기항하며 조선의 내정, 개항장 인근 지역에 대한 정보 등을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인적 구성의 연속성과 조선에 대한 정보 축적을 고려하면서 규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마기함 외에 반조함, 닛신함, 가이몬함(海門艦) 등 조선 연안에 파견되었던 일본 함선의 정탐 활동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同文彙考』卷4(國史編纂委員會 編, 1978)

「明治五年ノ七／卷之十七 係于花房大丞渡韓／2 壬申八月二十七日至」
(Ref. B03030170600)

「外入842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諸港測量等の件東海鎮守府屈」(Ref. C09113084200)

「履入734 吉田中尉外9名進退の件東海鎮守府屈」(Ref. C09112941600)

「外入924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測量略圖取調の件東海鎮守府屈」(Ref. C09113084300)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3月9日 朝鮮國近景等報告の義に付御屈」(Ref. C10100941600)

「普4136の2 太政官屈 天城艦二川釜山等停泊中探知の景況」(Ref. C09103598300)

「普4169の3 水路局へ通牒 朝鮮國麻山浦測量圖を天城艦にて調製濟」(Ref. C09103597500)

「外入313 天城艦乗組三浦少尉外2名より報告書水路局屈」(Ref. C09114129500)

「往出521 天城艦出發日限の件に付外務省へ申入」(Ref. C09114128400)

「明治八年十月五日午後二時外務省ニ於テ海軍省雇ヒ英人ゼームス氏ヲ招キ同氏カ曾テ朝鮮國江華島ニ航シ至リシトキノ景況ヲ問フゼームス答話聞書」(Ref. B03030131600)

「朝鮮國近景等報告の義に付御屈」(Ref. C10100941600)

堀江芳介壬午軍亂日記(西村榮雄 編, 山口縣: みずのわ出版, 2018)

『大木喬任關係文書』(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大山巖文書』(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赴韓日記』(竹添進一郎, 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 『三條家關係文書』(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 『杉村君日記』(杉村濬, 日本 栃木縣佐野市郷土博物館 所藏)
- 『水路雜誌』 第18號(日本 水路部 編)
- 『日本外交文書』 卷8·11(日本 外務省 編, 東京: 日本國際連合協會, 1949-1955)
- 『自明治八年至同九年 朝鮮關係 考證彙輯』(한국학중앙연구원 하성문고 및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 『帝國軍艦天城號朝鮮國沿岸測量一件』(Ref. B07090444500)
- 『朝鮮八域誌』(靑華山人 著, 近藤真鋤 譯, 東京: 日就社, 1881)
- 『花房公使朝鮮關係記錄』 卷7(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 『花房義質關係文書』 M/F(北泉社 제작,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樺山資紀文書』(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 『大阪日報』, 『東京日日新聞』, 『東京橫濱每日新聞』, 『西海新聞』, 『郵便報知新聞』, 『朝野新聞』, 『朝日新聞』, 『橫濱每日新聞』

2. 저서

- 金義煥, 『朝鮮對日交涉史研究』, 通文館, 1966
- 김홍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 조선말~일제강점기』, 法文社, 2011
- 왕위안충 지음, 손성욱 옮김, 『조선은 청제국에 무엇이었나』, 너머북스, 2024
- 정영미,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2015
- 최덕수 외 지음,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 최혜주, 『정탐 : 제국일본, 조선을 엿보다』, 한양대학교출판부, 2019

- 한철호, 『한국 근대 개화파와 통치기구 연구』, 선인, 2009
- 今井庄次, 『お雇い外国人 : 外交』, 東京: 鹿島出版會, 1975
- 上垣外憲一, 『ある明治人の朝鮮觀 : 半井桃水と日朝關係』, 東京: 筑摩書房, 1996
- 小林茂, 『外邦圖 : 帝國日本のアジア地圖』, 東京: 中公新書, 2011
- 小林茂 編, 『近代日本の海外地理情報収集と初期外邦圖』, 大阪: 大阪大學出版會, 2017
- 海上保安廳水路部 編, 『日本水路史 1871~1971』, 東京: 日本水路協會, 1971

3. 논문

- 박한민, 「1878년 두모진 수세를 둘러싼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日關係史研究』 39호, 2011
- _____, 「조일수호조규 관철을 위한 일본의 경찰활동과 조선의 대응」, 『歷史學報』 217집, 2013
- _____, 「개항장 ‘間行里程’ 운영에 나타난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國史研究』 165호, 2014
- _____, 「유길준 《世界大勢論》의 전거와 저술의 성격」, 최덕수 외 지음,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_____, 「1875년 운요함(雲揚艦)의 조선 연안 정탐 활동과 신문보도」, 『韓國史研究』 202호, 2023a
- _____, 「일본의 동해안 정탐 활동과 원산 개항」, 『한국근현대사연구』 107호, 2023b
- 양윤정,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 한철호,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東北亞歷史論叢』 50호, 2015

- _____, 「조일수호조규 체결 후 일본 군함 호쇼(鳳翔)의 조선 해안 최초 측량과 그 의의」, 『韓國史學報』 83호, 2021
- 小林茂·岡田郷子, 「19世紀後半における朝鮮半島の地理情報と海津三雄」, 『待兼山論叢 : 日本學編』 42, 大阪: 大阪大學 文學研究科, 2008
- 小林茂·岡田郷子·渡辺理絵, 「東アジア地域に関する初期外邦圖の編集と刊行」, 『待兼山論叢 : 日本學編』 44, 大阪: 大阪大學 文學研究科, 2010
- 安岡昭男, 「初期の東京地學協會と軍人」, 『政治經濟史學』 400, 東京: 日本政治經濟史學研究所, 1999
- 村上勝彦, 「解説 隣邦軍事密偵と兵要地誌」, 『朝鮮地誌略』 1. 東京: 龍溪書舍, 1981

〈Abstract〉

Reconnaissance activities and chart production of Japanese warships in Joseon in the 1870s and 1880s

Park, Han-Min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activities of Japanese warships that were dispatched to Joseon from the 1870s to 1880s to measure the coast to produce a nautical chart and collect regional information during reconnaissance activities. The warships noted here are Kasuga, Takaomaru, and Amagi, and the records related to the voyage to Joseon remain well. The Kasuga was a warship used by Hanabusa Yoshimoto when he was dispatched to Joseon to take over the Waegwan. At the time of the dispatch of the Kasuga to Joseon, Hanabusa and crew members carried and used books related to the system, history, and geography of Joseon, charts produced by U.S. ships as reference materials. By the time the Joseon-Japan Treaty of Amity were signed in 1876 after the warship Unyo incident in 1875, an opinion raising the need to measure the coast of Joseon came out in Japan. The coastal survey was reflected in subsection 7 of the Joseon-Japan Treaty of Amity. Japanese warships dispatched to Joseon along with diplomatic envoys to explore the treaty ports after the opening of Joseon included Takaomaru and Amagi. The survey record was prepared as a chart, and information on the area was added as the survey work was repeated over the years. In addition, some of the contents of the navigation log were edited and processed

and published in pilot magazines to increase utilization and accessibility. In the 1880s, the dispatch of Amagi to the port of opening of Joseon shows not only the protection of Japanese residents, but also the political changes inside Joseon and the atmosphere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pattern of reporting it to their home country.

Keywords : opening port, reconnaissance, the Joseon-Japan Treaty of Amity, nautical chart, coastal surveying, warship Amagi, warship Unyo, treaty port, Hanabusa Yoshimoto, the Sino-Japanese War

